

# 한글공예

KOREAN  
CRAFTS  
COUNCIL  
**KCC** 한국공예가협회

제78호 | 2022년 | 12월  
Korean Crafts Council Magazine







사단 **한국공예가협회**  
법인 KOREAN CRAFTS COUNCIL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36길 20, 1층  
전 화 02-324-4529  
팩 스 02-332-1493  
홈페이지 [www.craftkorea.org](http://www.craftkorea.org)  
이 메 일 [kcc4529@naver.com](mailto:kcc4529@naver.com)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발 행 인 장영란  
창 간 1986년 6월 30일  
발 간 2022년 12월  
통 권 제78호  
상임이사 신지혜  
총무이사 김봉희  
출판이사 윤지희, 김중기, 김정희, 최지영B, 서명수  
사무국장 한정림

표지이미지\_ 2022 목양공예상 | 오순희 원로회원  
선녀의탄생 모사, 면사, 견사, 인견사, 합성사  
160×210cm, 2022



## CONTENTS

03	GREETING	인사말   장영란 이사장
04	REVIEW	제49회 정기협회전-한국공예, 창의적 여정   윤지희 공예주간 특별전시   최지영 목칠공예분과_코편   김정희 섬유공예분과_비엔나   봉지희
12	PRIZE	목양공예상   오순희 한국공예가협회상   섬유 이상영 젊은작가상   목칠 박찬훈 금보성아트센터장상   목칠 김광렬 박병호 이하영
26	INSIDE	Invisibility in Visibility   신혜정 스마트폰 또 다른 자아의 기록   김한국 누보 피에스타의 힘   이예슬
30	SPECIAL REPORTS	자연을 이야기하는 금속작품   조유진 꽃과 새를 품은 화조-陶   임현자 “되돌아 보다”   김영신 “유리로 세상을 아름답게”   박선영
38	DISCOVERY	한국의 美   황혜미 웅진요   양미숙
40	CULTURE COLUMN	현대 공예가는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김승희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정희
44	NEWS	개인전 협회소식 광고







GREETING

##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감하며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이사장 | 장영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대 협회 임원진이 출범하여 바쁜 나날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초겨울의 문턱에서 오늘은 올 들어 처음으로 반가운 첫눈이 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인 모두가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으며 지루한 나날을 보내다 다행히 방역정책으로 인하여 서서히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재확산의 조짐과 뜻하지 않은 국가적 재난사태로 말미암아 연말 행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건강을 위하고 위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공예가협회는 5월 20일 충남 당진시 문예의전당미술관에서 초대기획특별전시 및 10월 22일 금보성아트센터에서 제49회협회정기전을 고문 원로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이어 2023년 5월 파주시 화이트블록미술관과 2023년 11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한가람미술관에서 한국공예가협회창립 50주년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사)한국공예가협회는 1973년 발기위원 10명에 의해 창립하여 반세기를 거치는 동안 명실상부 한국공예인을 대표하는 최고의 협회로써 시대와 문화적 발전에 앞장서 매년 협회정기전, 국제교류전, 금속 도자 목칠 섬유 유리 5개분과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늘 사랑과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주시는 고문님, 원로회원님, 임원 그리고 회원님들의 지대한 성원 속에 더욱 발전을 거듭해 올수 있었습니다.

현재 지구촌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K-pop을 위시하여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미술 공예 등 한국예술문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공예문화도 더불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공예는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는 산물로 그 나라 고유의 우수한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지역문화의 진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공예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 사)한국공예가협회는 시대적소명과 사회적기대에 부응 공예창작활동, 국제 교류, 공예 네트워킹 등 한국공예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우수한 작가 작품 활동의 굳건한 터전을 갖추는 더욱더 수준 높은 최고의 전문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반세기 협회 발전을 이루기까지 그 많은 세월동안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주신 고문 및 원로회원, 임원, 협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3 창립50주년협회전을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회원 및 공예 관련 분야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12월



## REVIEW

정기협회전

# 제49회 정기협회전 - 한국공예, 창의적 여정

윤지희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출판이사



2022년 제49회 (사)한국공예가협회 정기전이 “한국공예, 창의적여정\_K-Craft, Creative Itinerary”이라는 주제로 평창동에 위치한 금보성아트센터에서 2022년10월22일(토)부터 10월30일(일)까지 8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고문회원 19명, 원로회원 18명, 금속공예분과 47명, 도자공예분과 43명, 목칠공예분과 42명, 섬유공예분과 87명, 유리공예분과 14명 총 27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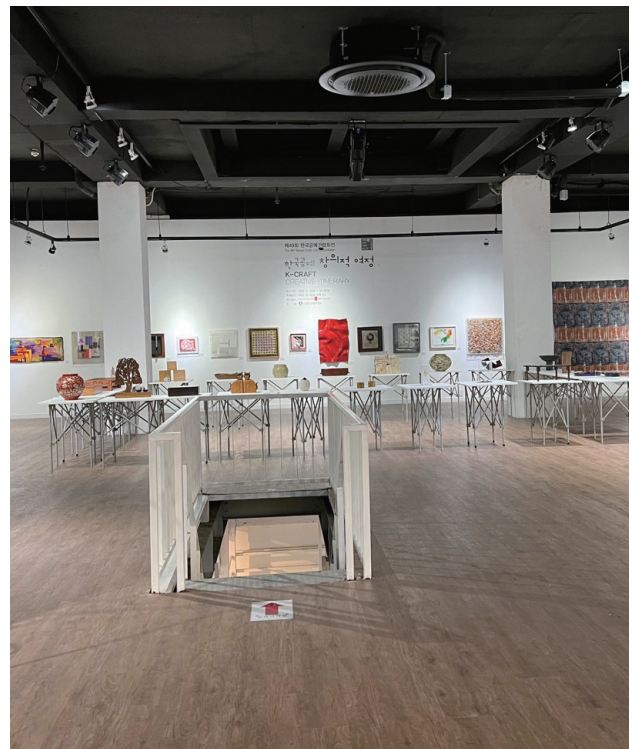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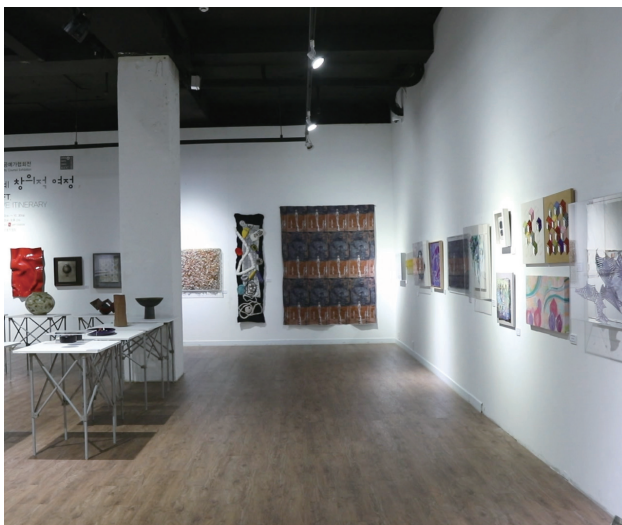
이번 전시의 주제인 “한국공예, 창의적여정\_K-Craft, Creative Itinerary”는 2023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창의

적 여정으로 K-CRAFT를 알릴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개막식전에는 고문 선생님들의 작품심사가 있었다. 제32회 목양공예상은 섬유공예분과 오순희 원로님이 선정. 제49회 한국공예가협회상은 섬유공예분과이상영 회원이, 제16회 한국공예가협회전 젊은 작가상은목칠공예분과 박찬훈 회원이 선정되었다.

이번 한국공예, 창의적 여정을 통해 우리 회원들간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나누고 2023년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에도 많은 회원이 참여하길 바란다. ▲







## REVIEW

공예주간

## 공예주간 특별기획전

최지영B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출판이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당진문화재단·당진문예의전당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2 공예주간 ‘한국현대공예 비상전’이 지난 2022년 5월 20일(금요일)부터 6월 2일(목요일)까지 14일간 충남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국현대공예 비상전은 고문회원 4명, 원로회원 7명, 금속공예분과 16명, 도자공예분과 24명, 목칠공예분과 26명, 섬유공예분과 57명, 유리공예분과 7명으로 총 141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공예는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문, 원로, 정회원과 신입, 재가입 작가의 참여구성으로 전통 공예로부터 현대 공예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공예와 앞으로의 공예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이번 전시를 토대로 현대 공예의 비상을 기대해 본다. ▲







## REVIEW

### 코편 기획전

## 2022 목칠분과 기획전(KOFURN)

김정희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목칠공예분과

‘2022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코편(KOFURN 2022)’이 2022. 8. 25.(목)부터 8. 28.(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198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33회를 맞는 코편(KOFURN)은 40여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가구산업 전시회로 목공기계, 원·부자재, 인테리어 소품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200개의 가구 기업이 모여 약 1,2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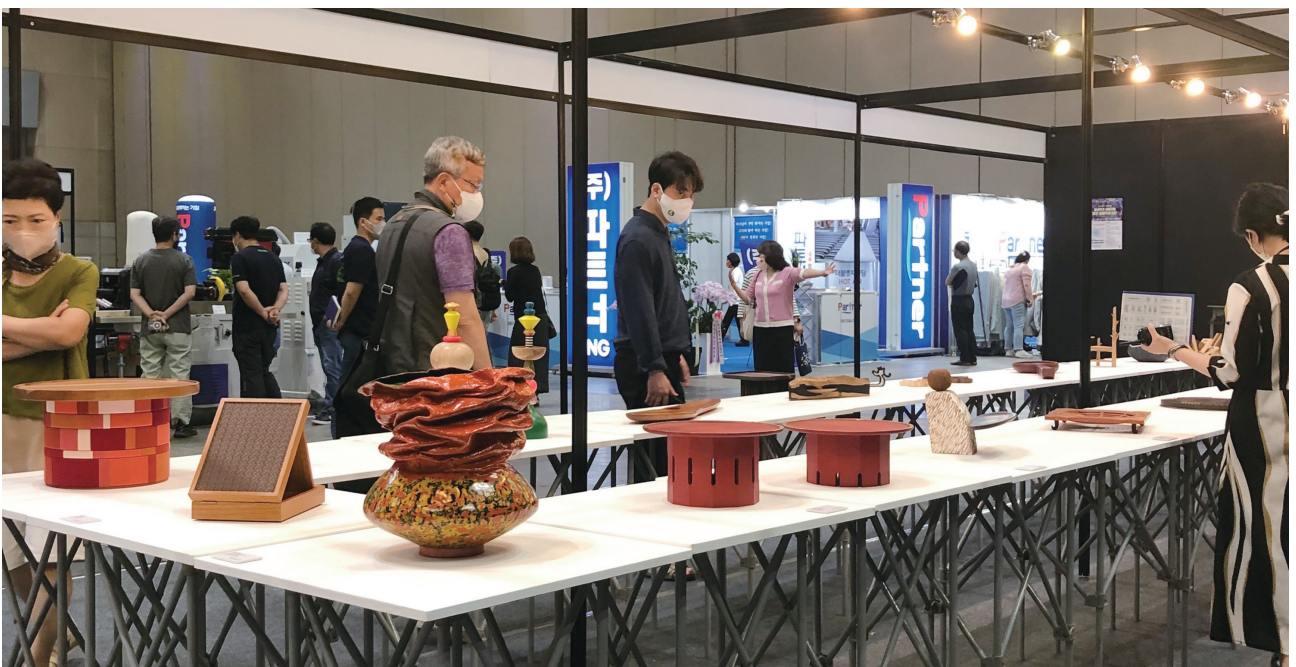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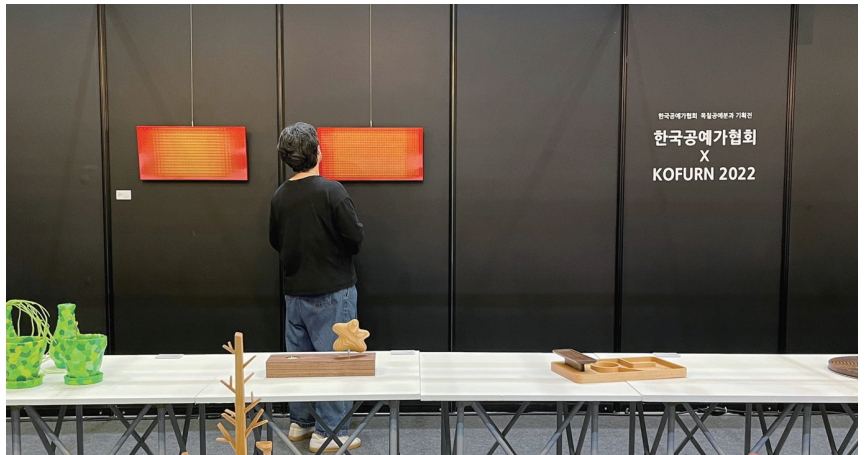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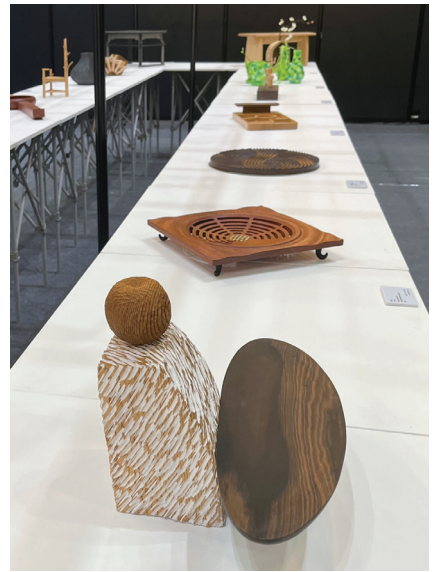
이번 코편(KOFURN)은 ‘대한민국 대표 가구 전시회’를 주제로 우수한 품질, 최신 디자인의 가구와 최근 소비경향과 새로운 생활방식을 반영한 제품을 선보여졌다. 참여 기업들은 참신성과 실용성을 두루 겸비한 가구용·사무용 가구 제품을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으며, 그 결과 약 32억 원의 상담실적과 20여억 원 상당의 계약 추진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판로 확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공예가협회 목칠분과 분과사업으로 코편(KOFURN 2022)에 부스가 마련되어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다.

참여작가는 강신우, 김건수, 김경원, 김광렬, 김승준, 김영주, 김완규, 김정호, 김정희, 김지현, 나수연, 남궁선, 박병호, 박신영, 박찬훈, 신영아, 신예원, 유선영, 이상일, 이종수, 이하영, 임광순, 전보경, 조원희, 최시복 총 25명의 회원이다. 코편(KOFURN)과 같은 행사에 보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









## REVIEW

제3회  
한국예술제

# ‘한국섬유공예의 미’를 비엔나 도나우 호숫가에... 한국섬유예술전 개최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한오 수교 130주년 기념-

봉 지 희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국제교류이사

장영란 한국공예가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공예가협회 섬유분과 작가 12명은 2022년 5월 3일에서 5월 6일,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 한인문화회관 전시장에서 ‘제3회 한국예술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섬유예술전’에 초대되어, 한국 섬유공예와 조형 창작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이는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전시이다. 2008년 섬유공예분과 봉지희 회원이 오스트리아 빈 교민 연합회와 뜻을 같이하여 한인문화회관 설립을 위한 예술제로서,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과 교민연합회의 후원으로 ‘한국의 미’ 전시를 비롯한 ‘한국의 소리와 춤’ ‘한국 궁중 한복 쇼’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장사익 소리꾼, 서울솔리스트앙상블 등 국내 정상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가 빈 팔레팔피 궁에서 2010년 제1회 한국예술제로 열려, 설립 모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한인문화회관의 설립을 돕는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본 예술제는 오스트리아 대통령, 빈 시장, 양국 외교, 문화 관련인 등의 참석으로 양국 간의 문화 교류의 교두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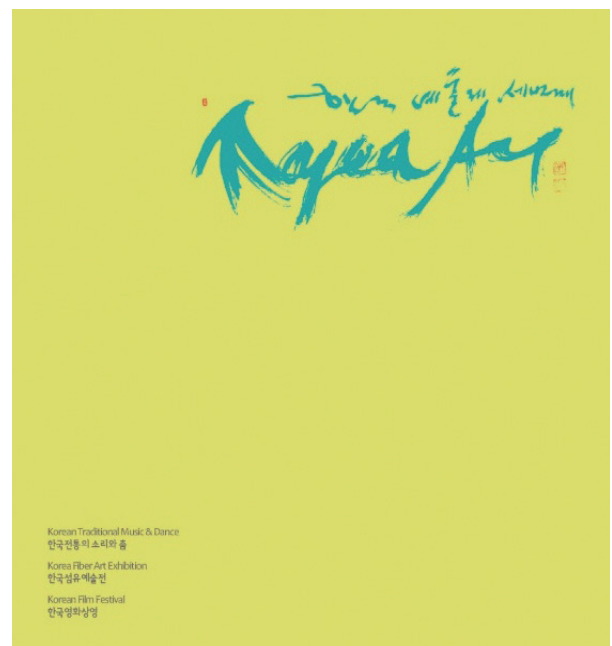
2012년 빈 도나우 호숫가에 설립된 한인문화회관의 개관에도 한국예술인들이 초대되어 ‘한국의 미’ 전시로 오스트리아 현지 작가들과의 교류전을 열었으며, 국악, 전통무용, 비보이, 태권도 등 복합예술제가 펼쳐졌다.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10주년인 2022년, 개관 전시에 초청된 작가들이 재초청 되고 신규 작가들을 추가하여 개관 10주년의 초대전을 열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4일간 열린 본 전시회에 오스트리아 대통령 외, 주 오스트리아 대사, 한오협회장, 문화부 국회의원, 유럽한상회원, 한인연합회 교민 등 많은 관람객들이 내방하였으며, 다양한 조형미를 표현한 섬세한 한국 섬유공예의 작품들을 감상하였다.

출품작가는 다음과 같다

구아민, 김유림, 김형주, 박성림, 봉지희, 오현아, 윤미경, 이상영, 이혜원, 장영란, 전경화, 홍동희 ▲







## PRIZE

목양공예상

## 목양공예상

오 순 희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원로회원

### 수상소감

2022년도 제32목양 공예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장영란 이사장님, 고문 선생님, 협회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공예가협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녀의 탄생” 작품은 자카드 직기로 작업한 것이다. 자카드 직기는 1801년 프랑스인 조세프 마리에 자카드(Joseph Marie Jacquard, 1752-1834)가 개발한 것으로 종광들이 일반 도비(Dobby)장치에서 처럼 종광 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종광이 독립적으로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자카드의 바늘을 구수(口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500구의 자카드는 침이 500개인 자카드를 말한다. 자카드 직물 제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카드 디자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 1)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 2) 완성된 디자인 작업을 스캔하여 자카드 프로그램으로 불러오기  
컴퓨터 프로그램 없이 포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 할 수도 있다.
- 3) Epi(Ends per Inch)와 Ppi(Picks per Inch)에 맞게  
Crunch하여 규격 정하기
- 4) Color 입히기  
Color의 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조직도의 수에 따라 Color의 숫자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에 사용될 조직도의 숫자가 6일 경우 여섯 가지의 Color separation이 필요하다.
- 5) 조직도를 Graphic에 넣기
- 6) Float Check하기
- 7) Salvage 정하기



선녀의 탄생 모사, 면사, 견사, 인견사, 합성사, 160×210cm, 2022

- 8) Box chain 정하기
- 9) 디스켓에 저장하기
- 10) 위사의 종류와 색상 선택하기
- 11) 컴퓨터 자카드 Loom에 디스켓 넣고 시작하기
- 12) 완성

### 40여년 간의 작업 여정

제1기 : 전통적인 평면직조작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의 입체 조형 작업, 프린팅, Drawing 등의 다양한 작업





## Artist Profile

### 오순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생활미술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대학원 졸업(M.F.A.)  
프랑스 Paris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졸업  
미국 Auburn University 조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섬유미술과 교수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뮤지엄 오브제와 크래프트 상  
한국 공예대전 심사위원  
국제문화 심포지움: 금속과 섬유 워크숍

한국 전통죽공예 연구발표, 중국 북경 세계공예가협회  
박을복 자수예술가 작품집 “바늘 끝에 아로새겨진 오색의 아름다움”  
저서 출간, 1997년 3월  
1980 - 2010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섬유미술과 교수  
2002 - 현재 (재)박을복자수박물관 관장  
2015 - 현재 서울특별시 박물관협회 이사  
현재 (재)박을복자수박물관 관장  
2010 -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2015 - 현재 서울특별시박물관협회 이사

을 한 시기이며, 한국의 전통기법 매듭을 김희진 매듭장에게 사사 받아 작품에 응용한 작업 시기이다.

**제2기:** 1980년대 후반의 다양한 주제와 재료에 바탕을 둔 실험적 작업 시기이다.

**제3기:** 1990년대의 바스켓트리(Basketry) 작업 시기이다.

**제4기:**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이용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직조 작업 시기이다.

2002년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일년간 직조에 새로운 시대의 테크놀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컴퓨터 인

터페이스드 직기(Computer-Interfaced loom)로 제작한 직물들과 포앵카레(Point-car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자카드 직조(Jacquard weave)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업한 시기이다.

나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형적 접근에 있다. 직조의 방식에 충실하지만 다양한 기법과 재료의 실험적 시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물질은 재료 이상으로 작품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나의 작업특징은 일상과 자연에서 작업의 소재를 채택하여 조형적 접근방법으로 작업하며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기법을 계승하며, 여러



**마스크B Jute** 50×75×20cm, crochet, wrapping, 1974



**긴여정** 자카드파피스트리, 모사견사, 마사, 인견사, 합성사, 125×30cm, 2006



**자화상 Self portrait** 150×300cm  
자카드직(Jacquard weave) 2002

가지 재료와 기법을 시도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실험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의 작업세계는 수 직조와 컴퓨터 기계 직조, 전통 섬유 소재와 실험적 소재, 전통과 현대, 동·서양 문화권의 접목에 바탕을 둔 야누스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전통에 머물지 않고 시대에 부응하는 표현을 통해서 미래의 섬유 세계를 제시하는 교육자이자 섬유예술가로 노력하고 있다. ▲



고향생각 "Nostalgia" 60x90x7cm 자카드직(Jacquard weave) 2002



부모생각 160x300cm  
자카드직(Jacquard weav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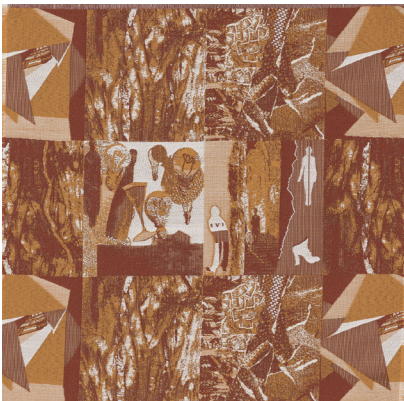


그리움 자카드 타피스트리, 150x330cm,  
모사, 합성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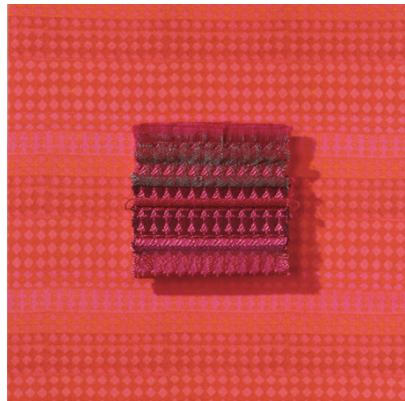


자카드작품 5 "Jacquard 5" 125x250cm  
자카드직(Jacquard weav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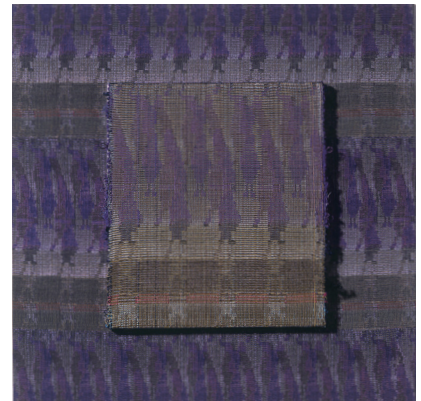




와인축제 "Wine Festival" 45x45x7cm 인견사, 합성사  
자카드직(Jacquard weav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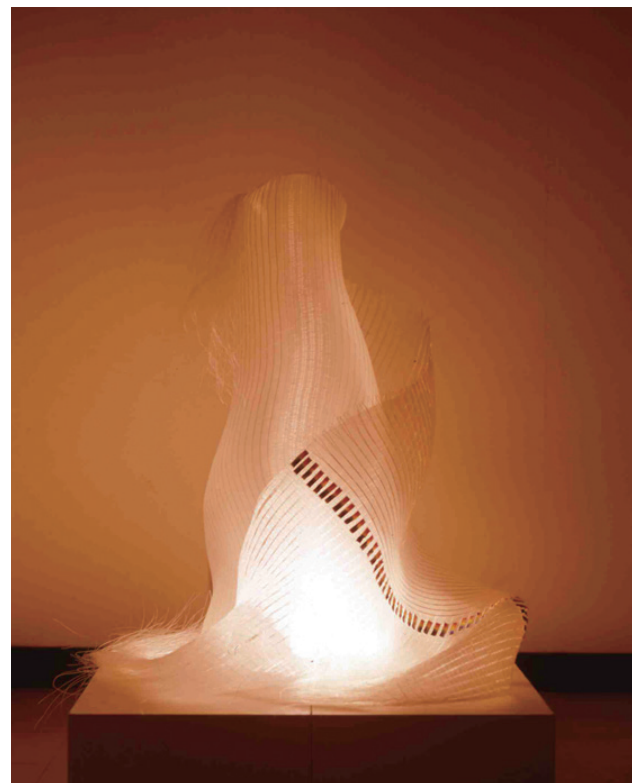
봄 II "Spring II" 45x45x7cm  
컴퓨터 직(Computer weave) 2002



동반자 45x45x7cm 컴퓨터 직(Computer weave) 2002



"바스켓트리 '99-7'" "Basketry '99-7" 15x15x30cm 전자부품 Cable wire  
망짜기(Sprang) 1999



채상바구니의 여운 "93-III" "Basketry '93-III" 80x80x120cm 황동선, 모노필라멘트, 천  
(Brass wire, Monofilament, Fabric) 평직, 이중직(Plain weave, Double weave)



PRIZE

협회상

## 한국공예협회상

이 상 영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섬유공예분과

하루하루가 쌓여 삶을 만든다. 하루의 흔적들은 시간이라는 캔버스에 남아 융합되면서 나를 만든다. 과거의 살아 온 나, 현재의 살아가는 나, 미래의 살아갈 나의 내면에는 생각, 행복과 불안, 자기기만과 가식, 무의식이 담겨 있다.

내 작품의 '한옥'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소재이기보다 어릴 적 삶의 기억과 향수를 상징한다. 한옥의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중첩됨으로써 서로 어우러져 있는 응축된 시간과 경험들을 상징한다. 그들을 비추는 빛은 시·공간에 쌓인 많은 이야기를 조형예술의 세계로 이끌어낸다. 빛에 의해 드러나는 공간은 상호작용을 통해 또 다른 3차원 공간을 형성한다. 이렇게 해서 한옥의 이미지는 원형을 넘어서 새로운 가상의 공간을 창조하고 반복과 중첩을 통해 유사성과 차별성을 만들어 낸다.

기억의 공간은 상상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내 마음의 유토피아는 새로운 꿈을 잉태함으로써 확장을 거듭하여 영원한 미완의 상태로 남는다. 이렇게 해서 나는 관객과 함께 각자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고 미래를 기다리려 한다.



The Duality of Light\_ A piece of thought VII-1 / 빛의 이중성\_ 생각 조각 VII-1  
embroidery, polyester, rayon thread, 1000X600X130, 2021

나는 빛의 여러 이야기를 현대 자수와 그에 대조되는 기계, 컴퓨터 자수를 이용하여 사물의 본연의 모습과 왜곡된 모습, 사람의 속마음과 겉모습의 공존을 중첩적으로 표현한다.

기본적 요소인 한옥 지붕은 기억의 편린을 상징한다. 집중되어 중첩된 지붕들은 깊이 각인된 기억이나 생각, 분산되어 흐트러진 형태는 흐릿한 기억이나 잠재의식을 형상화한다. LED 조명은 다양한 굵기, 색상, 서로 다른 질감의 실이 쌓인 화면에 역광 효과를 보이면서 작업의 공예적 과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도구이다. 조명의 밝기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 레이스, 스팅글, 노방, 모직 등 원단의 차이에 따라 빛의 투과 양이 다르기에 인공 빛의 조도와 색상이 변화될 때마다 작품은 인상적 이미지의 평면을 더 드러내거나 숨긴다.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컴퓨터 자수를 이용하여 만든 작은 한옥 지붕 이미지의 개체들을 전시장 벽에 가득 채우거나, 아크릴 박스 안에 개체들을 넣고 그것들이 투시되거나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과 중첩되도록 함으로써 상상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 Artist Profile

### 이 상 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졸업(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섬유예술과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10회 및 단체전 90 여회, 국내외 공모전 13회 수상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작품소장.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개인 작가 부문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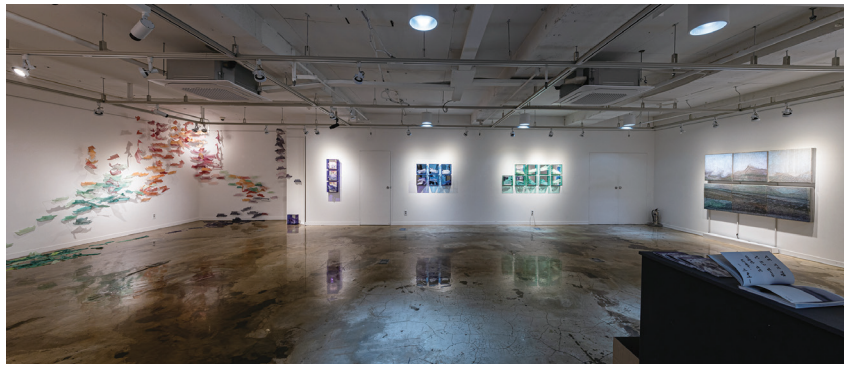
현) 이화여자대학교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한옥 이미지를 수없이 겹치거나 나열시켜 반복과 중첩이 생기도록 하는 구조는 일종의 거울방인 아크릴 박스 안에서 이미지가 반사되거나 투시되는 구조와 비슷하다. 실재하는 한옥 이미지들이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빛의 작용으로 형성된 가상적 한옥 이미지들과 중첩됨으로써 내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내가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조형 언어로서 자수 조형의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2022년 한국공예가협회상이라는 커다란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늘 부족함을 깨달으며 스스로를 독려하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 작업과 삶의 멘토이신 은사님, 우리나라 공예를 이끌어오신 훌륭한 고문 선생님들과 원로 선생님들, 협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주시는 회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늘 저를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주신 의미를 깊이 새겨서 더 발전하고 성숙한 현대 자수작가로서 공예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시장 전경1 kodi갤러리 2021



전시장 전경2 kodi갤러리 2021



Coming Across\_Mikrokosmos III / 조우\_소우주 III, embroidery, polyester, rayon thread, 가변설치, 2022



PRIZE

젊은작가상

## 젊은작가상

박 찬 훈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목칠공예분과

제49회 한국공예가협회전에서 젊은작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에 이어 ‘젊은작가상’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노력했는지 돌이켜보니 부끄러울 뿐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응원과 격려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 연결 시리즈 작품은 한국전통가구인 궤의 육면체적 형태에서 착안하였으며 가구에 얇게 문양을 새겨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시각적으로 착시효과가 나고 촉각적으로는 만졌을 때 딱딱하고 거친 느낌이 아닌 부드러운 엠보싱 느낌을 나도록 한 작품입니다.

기존 문양의 음각되어 있는 가구의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이물질이 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문양 깊이를 얇게 하여 이물질이 끼는 현상을 최소화하였으며 기화문, 빗금문 등 떡살에 많이 사용하는 단순한 형태의 문양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작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신 강신우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를 맡아주신 한국공예가협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것을 배워 정진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젊은작가상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연결 2021 10×4.2×9.2cm, 호두나무, 자작나무합판, 2021



### Artist Profile

#### 박 찬 훈

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가구디자인전공 졸업  
 서일대학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출강  
 단체전 및 그룹전 다수  
 피아즈 스튜디오 운영  
 전라북도산업디자인협회, 한국가구학회 회원



연결 2020 1000x330x280mm 백참나무, 호두나무, 자작나무합판



연결 2019 1500x380x300mm, 단풍나무, 호두나무, 자작나무합판



연결 2021 900x330x800mm 호두나무, 자작나무합판



## PRIZE

금보성  
아트센터장상

## 금보성아트센터장상

김 광 렬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목칠공예분과

청년시절에는 지금처럼 기독교인 요소들을 작품에 드러내는 것을 참으로 주저하였다. 얇은 나의 믿음과 잘못된 성경적 지식으로 우매한 상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과 함께 주변인들의 곱지 않은 눈총이 두려웠다. 또한 작업으로 표현할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십수 년을 그렇게 지냈다. 확신이 없는 작업을 하는 동안 참으로 혼란스럽고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연속되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방향했던 시기에 사람들로 인해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괴롭게 된 원인 가운데 나는 내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은 없었는가?”하고 자성하여 본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대지 않았는가. 이런 냄새나는 속내를 감추고 그분을 향한 가식적인 작업으로 드러내놓는 것이 부끄러웠다. 작품에 성경적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나



사진 8) Thorns in my heart-1 꾸지뽕나무, 메탈릭 금분, 2022



사진 1) 삼위일체 흑단, 2015

의 속과 겉이 다른 행위로 인해, 그분에게 뽕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악한 내면의 모습이 작업에 비취 지지는 않을까, 간절한 신앙인들에게 지탄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작업을 어렵게 하였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 작품에서 드러나지 않는 나의 신앙적 양심(?)이 부끄러웠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과정들이 나를 좀 더 단단하게 하였고 결단으로 조금씩 정형적인 십자가 형태에서 ‘가시’로 표현하는 길을 찾았다. 그분이 인간의 죄인 가시로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 때문인 것이었다. 어리석은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감내하시는 모습을 대면하면서, 내 마음 속의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분과의 교감을 통한 작업으로 또 다른 길을 찾아 그분의 의를 나타내려 모색하는 중이다. ▲



## Artist Profile

### 김 광 렬

홍익 대학교 미술 대학 공예 학과 목공예 전공 졸업  
 홍익 대학교 대학원 목질 전공 졸업  
 한국가구디자인협회 회원, 한국공예가협회 회원, 홍림회 회원  
 한국조형디자인학회 회원  
 경기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  
 협성대학교 예술대학 가구디자인학과 교수



사진 3) 모퉁이 돌-2 단풍나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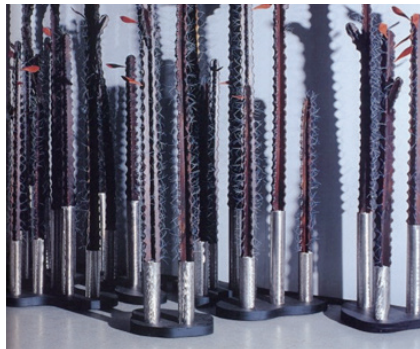


사진 4) 群像의 가시 장미목, 2005



사진 5) 천사날개 흑단, 아크릴, 2006



사진 7) 억압받는 가시 아크릴,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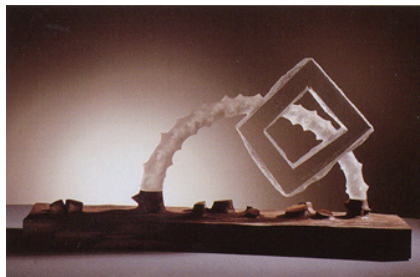


사진 6) 廣野의 외침 흑단, 아크릴, 2005



사진 9) Thorns in my heart-2 꾸지뽕나무, 메탈릭 금분, 2022



사진 2) 對面 제주 현무암, 2018

사진 1) 거칠게 작업한 십자가 기둥에 부드럽고 잘 마무리된 자유곡선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가운데 원은 모든 만물과 우주가 그 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사진 2) 제주작업장을 만들면서 마음의 안식이 절실하여 혼자 들어가 기도하고 책을 보며 쉬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여 만든 공간이다. 발을 일구며 생긴 쓸모없는 작은 돌들을 무더기로 쌓아 두었다가 십자가가 있는 벽을 세우는데 사용하였다.  
 사진 3) 버려진 작은 각목에 리본형태의 십자가를 조각하였다.  
 사진 4) 서막에서 자라는 선인장들은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이상적인 군상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사진 5) 세상의 가시밭에서 모든 가시들을 이겨내고 하늘에 오르는 날개형상이다.  
 사진 6) 황량한 광야에서 그 분이 오실 것을 외치는 세례자 요한을 의미한다.  
 사진 7) 세상이 자신들의 경직된 틀에 가두고 억압하려 하지만 가둘 수 없는 또 다른 가시가 생기는 것이다.  
 사진 8) 그 분이 처절하게 받았던 고통과 조롱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의 가시가 남아 있다.  
 사진 9) 내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본다.



## PRIZE

금보성  
아트센터장상

## 금보성아트센터장상

박 병 호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목칠공예분과



목기 2017-12 물푸레나무 목조각기법, 짜맞춤기법 700×240×50mm 2017

나무를 매개체로 하여 완성되는 형상은 만드는 사람이 나무라는 천연소재에 대하여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나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중압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여 나무와 사람이 닮아가는 듯 하다.

나무를 대할 때 주관적으로 태도를 견지할지,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야 할지의 어려움이 작품을 구상하는 첫 번째 관문일 수 있으며, 또는 작품을 구상하고 나무를 구할지, 만드는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귀한 나무를 놓고 뒤늦게 구상을 해야 할지, 나무를 다루는 작업은 하면 할 수록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긴 시간의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도구를 준비할 때 기존의 만드는 방법으로, 때로는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새롭게 펼쳐야하는, 그래서 실수, 실패에 이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한동안 나무를 다루는 방법으로 짜맞추어 결과물을 내는 흐름으로 지속적인 작업을 해오다가, - 여기에는 나무를 다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과 나무를 다루는 재주를 숙달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부분 작용하였다 - 제작 후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작품의 형태유지에 많은 문



## Artist Profile

### 박 병 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목칠공예, 가구디자인전공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목칠공예, 가구디자인전공 졸업 (미술학석사)  
 강원대학교 대학원 임산공학과 목질재료공학전공 졸업(공학박사)  
 개인전 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강원도 문화재위원, 한국공예대전 심사위원  
 강원대학교 인문사회디자인스포츠대학 생활조형디자인학과 교수

제점을 노출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큰 실망감과  
 하여 누군가에게 결과물을 건넸을 때 걱정거리로  
 남아 마음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무를 덩어리로 표현하여 나무  
 가 가지는 천연적인 모습을 크게 상하지 않고 만  
 든 후에라도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조각 위주의  
 작업으로 변화를 주게 되었다. 이러한 다소 변화  
 된 작업의 과정으로 두서너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중에 금번 전시에서 목기가 선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무를 다루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만드  
 는 사람 삶의 표상이라고들 한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변화된 작업과정은 기분 좋게 한동안 지속  
 될 듯 싶으며 나무가 주는 질감을 상하지 않고 공  
 예를 시작하게 된 초심도 잃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결과물을 건넸을 때 찝찝한 구석이 남지 않도록  
 마음을 다 잡아야겠다. ▲



향수 2017-8 팽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짜맞춤기법, 540×175×175mm 2017



목기 2022-5 단풍나무, 목조각기법, 700×240×50mm 2022



목기 참죽나무, 목조각기법, 700×230×70mm, 2022



## PRIZE

금보성  
아트센터장상

## 금보성아트센터장상

이 하 영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목칠공예분과



출품작 : 승태건칠 구멍무늬호

한지종이는 문방사우의 하나로 글씨를 쓰거나 책을 만드는데 필요하며 창호와 벽지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상들은 한지의 질감이 부드럽고 탄력성이 뛰어나며 염색이 잘되고 질긴 성질을 지닌 종이의 특성을 살려 겹의 한지를 덧붙여 농이나 장을 만들기도 하고 상이나 함, 그릇, 등잔, 심지어 갑옷 등을 만드는 창의성과 예술성을 발휘하였다.

지승기법으로 한지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비벼 꼬아 노끈처럼 엮어 삼베와 옷칠을 이용하여 그릇 형태와 그 외 실용품을 만들었다. 한지의 파지를 폐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공예법으로 일명 노엮개, 지노라고도 불리며 한지종이가 흔치 않았던 예전에는 글씨연습을 하고 버리게 된 한지 종이와 헌책을 이용하여 요강, 짚신, 가방, 명석,

화살통, 그릇 등 다양한 실생활 용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발생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에 한지 종이로 된 생활용품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작품은 한지끈과 삼베를 주 재료로 하는 승태건칠(繩胎乾漆)로 제작하여 옷칠과 색옷칠로 마무리 하였다.

### - 구멍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바리모양(鉢形) 토기의 아가리 아래쪽에 직경 5mm 이하의 구멍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새긴 토기로 구멍무늬 토기는 기벽(器壁)의 관통 유무, 새김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무늬로 나뉜다. 구멍을 새기는 도구는 봉상(棒狀)이나 죽관상(竹管狀) 도구로 추정되며, 구멍의 지름은 대체로 돌류문이 3mm 내외이고, 공렬문은 5mm 내외이다.

구멍무늬 토기는 주로 민무늬토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걸쳐 팽이형 토기의 주요 분포권인 황해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타난다. 같은 수법으로 만든 토기는 이전의 신석기시대 후기~말기에 한반도 남부 각지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무늬 종류에 따른 일정한 지역적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구멍무늬 토기가 신석기시대 후기~말기의 빗금문살무늬(斜格子文)와 결합하거나 겹아가리(二重口緣)토기와 짝하므로, 신석기시대 후기~말기에도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 계보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청동기시대의 구멍무늬 토기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한반도 남부 전역에 분포하였던 대표적 토기이다. 민무늬토기시대 중기, 또는 후기의 송국리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 외에 한강 유역이나 영동 지방,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해



### Artist Profile

#### 이 하 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시각디자인전공 졸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디자인공예학과 디자인공예전공 졸업  
 아시아옷칠교류전- Myanmar Bagan 옷칠대학 갤러리  
 유럽 나전옷칠 순회전- Italy, Hungary  
 한국문화원 남북화합을 위한 나전옷칠전-청와대사랑채  
 한.영 수교 70주년전- London Asia House  
 한국칠예가회 창립30주년 지상전 참가  
 한국공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정년

<p>양양 포월리 유적 출토</p>	<p>웅진 송평동 출토</p>	<p>진주 대평리 출토</p>

안 지역에서는 무늬의 모습이 청동기시대 중기까지 남아 있기도 한다. 이 토기들은 지역에 따라 구멍무늬 유형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전 지역에서 돌류문과 공렬문이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중서부 지방에서는 공렬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구멍의 직경도 작은 것이 우세한 반면, 동남해안 지역은 돌류문이 우세하고 죽관상 도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직경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또한 동북 지방의 구멍무늬 토기가 적지만 같은 시기에 아가리 아래 표면에 도구로 찢어 만든 자돌무늬가 여러 줄 새겨진 모습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들 토기에서 구멍무늬 토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구멍무늬 토기는 기벽에 무늬를 직각으로 하나하나 찢어 1조만 새긴 반면, 동북 지방의 자돌무늬는 기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찢은 흔적이 남아 있고, 눌러 빼치거나 그은 형태도 있으며, 여러 조를 새겼다는 점에서 새김 방식의 차이가 명확한 편이다.

구멍무늬 토기의 기원을 한반도 밖에서 구하는 견해와 달리, 한반도의 여러 유적에서 확인하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신석기시대 후기~말기에 이미 구멍무늬 토기가 등장하였고, 하남 미사리 유적의 구멍무늬 토기 출토 주거지에서 빗살무늬 토기 조각과 펜돌도끼(打製石斧)가 확인되었으며, 절대연대가 이른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한반도 남부에서 자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빗살무늬 토기의 출토 정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형식학적 발전 양상이 분명치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구멍무늬 토기의 기원은 아직 정설이 없는 상황이다. ▲



## INSIDE

Invisibility  
in  
Visibility

## Invisibility in Visibility

신혜정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금속공예분과



숨겨진 이면 9 / hidden side 9  
정은 sterling silver, 90x150x18mm 2022



보이는 것 너머 1 / beyond what you see 1  
정은 sterling silver, 110x180x25mm 2022

### 자유로움 속에 자리한 질서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조형적으로 다소 반복된 수학적 규칙성을 형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물을 향한 오랜 관심 속에서 관찰자의 의식은 보고 있는 대상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경험하게 된다. 외형상 자유롭고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자연물의 구조적 세부 메커니즘은 사실 정교한 규칙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유로움 속에 숨겨진 질서 와도 같다.

다양한 식물을 접사로 찍어 유명한 독일의 사진작가 칼 브로스펠트(Karl Blossfeldt, 1865-1932)의 사진들은 각 식물만의 규칙적 구조와 유기적 조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연이 만들어 낸 놀라운 질서의 배열은 오랜 시간 예술가들이 추구해온 표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방대한 양과 다양함을 보여준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세계의 너머를 보려는 것이 창작자의 근원적 욕망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 이면에 자리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최근 작업에서 나의 관심은 그렇게 표면 너머 은닉된 이면에 관한 것들이다. 장신구 작품은 누군가의 신체나 의상에 장식될 때 작품의 설치가 완성된다. 이것이 조각이나 회화 등 다른 미술작품의 일반적 설치와는 다른 점일 것이다. 감상의 주체에 따라서 놓여있는 정물이나 손안에 아름다운 기물이 되기도 하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바라보듯 한편의 회화적 구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신구의 감상은 착용자와 그 착용자를 바라보는 제3자, 양자의 시선관계속에 동시에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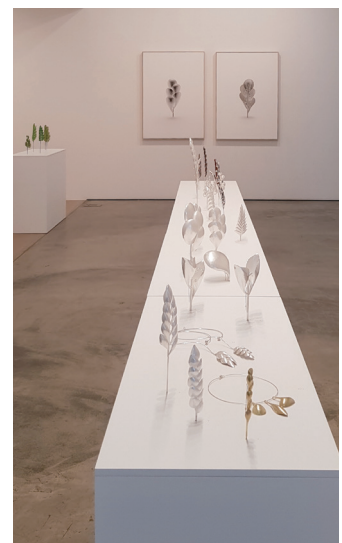


전시전경



전시전경

한다. 그 점에 주목하여 나는 이번 전시의 작품형태에서 장신구의 뒷부분에 또다른 특별함을 더해 보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핀장식 혹은 고리와 같은 구조물이 있어야 할 뒷면에 자리한 숨겨진 작은 형태는 우연한 만남과 새로운 발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좌대에 놓인 기물로서 장신구와 착용된 장식으로서 장신구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오브제 속에 발견되는 다름을 표현하고자 했다. ▲



전시전경

## INSIDE

스마트폰  
또 다른  
자아의 기록

## 스마트폰 또 다른 자아의 기록

김 한 국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유리공예분과

과거 간단한 문자와 전화의 용도로만 사용되던 휴대폰에서 20세기 혁명적 기계로 발전한 스마트폰은 이제 더 이상 통신만을 위한 전자 기기에 불과하지 않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기능적 발전과 휴대성은 우리의 삶에 더욱 밀접하게 함께하며, 현대인에게 마치 분신과도 같은 일상을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다.

과거의 어떤 시대에 하루종일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만드는 기기가 있었겠는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의미는 각별해졌으며, 사용자의 흔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자아의 일기장 같은 존재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잠겨있는 스마트폰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우리는 사용자의 취미나 관심사, 동향,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마트폰은 전자 기기가 아닌 한 사람의 자아의 흔적을 기록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작은 터치들이 모여 나 한 사람을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각인된 무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스마트폰이 사람의 자아와 무의식을 기록할 수 있는 훌륭한 오브제라 생각하여 흥미를 느끼며 작업하게 되었다.

<86400sec> 작품은 형태적으로 손목시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형태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24시간, 1440분, 86400초’라고 정해진 약속으로 되어있으며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다. 하지만 다른 의미의 시간을 살펴보면 시간은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 현재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길 희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시간에 대한 갈망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길 바라기도 하며 또는 행복한 이 순간 멈추어 버렸으면 하는 시간이다. 똑같이 한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생각하는 주체는 모두가 다르다.

이에 본 작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각 다양한 사람을 대변하는 오브제로써 사용자들의 기록된 추억들과 의사소통의 데이터를 간직하고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는 무의식으로 시간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야기한다. ▲



소통의 밀실 mixed media, smart phone,  
550×890×40mm, 2022



<86400sec> Mixed media, Smartphone, Sandblasted,  
610×770×45mm, 2022



House or Home mixed media, smart phone, 960×680×40mm, 2022



## INSIDE

### 누보 피에스타의 힘

## 누보 피에스타의 힘

이예솔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도자공예분과

### Nouveau Fiesta

장식은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 화려한 식기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평범하게 느껴졌던 우리의 일상은 한순간 마법처럼 연회장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누보 피에스타>는 아르누보의 화려한 장식을 통해 공간을 연회장으로 바꾸는 경험에 대한 작업이다.

<누보 피에스타>는 아르누보 패턴을 이용한 리빙오브제 작업이다. 아르누보는 여성과 자연의 유려한 곡선을 장식화한 패턴으로 수공예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양식이다. 누보 피에스타 시리즈에서는 아르누보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패턴을 이용해 연회장에서 춤을 추는 드레스의 형태로 제작한다.

도자를 기반으로 제작하는 누보 피에스타 시리즈는 러스터(금, 은)와 유리를 통해 아르누보 양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철제와 유리를 재현한다. 또한, 파스텔톤의 색감과 앤틱한 감성이 특징인 아르누보의 독특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 불규칙적인 결정유를 사용해 작업을 진행한다.

아르누보 패턴의 화려하고 우아한 <누보 피에스타>시리즈는 사용자의 일상에 들어가 평범한 순간을 연회장의 한 가운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일상은 장식을 통해 새로운 연회가 된다.(Nouveau Fiesta)

### 작품의 구성요소 1. Art Nouveau

아르누보는 19세기부터 시작해 20세기 초,

시기 전환기의 시대적 요구와 분위기로 시작한 예술운동과 함께 유럽 및 미국, 남미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사용되었던 옛 양식이다. 아르누보는 대표적으로 덩굴식물 및 꽃무늬와 같이 유기적인 선과 반복적인 패턴이 특징이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 환하고 연한 파스텔 계통의 부드러운 색조를 이용한 수공예적 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아르누보의 유기적 선과 반복적 형태를 하나의 패턴 해석하여 Nouveau Fiesta 시리즈를 제작한다.

### 작품의 구성요소 2. 도자와 유리의 물성 혼합

물성이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의미한다. 물성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맞는 작품 및 제품이 제작되고 있다. 상반된 재료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디자인을 자아내는 타재료의 융합은 미적 표현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불투명성을 지닌 도자와 투명성을 지닌 유리의 대조적 물성의 결합은 서로의 결합을 함께 채움으로써 작품의 심미성 및 재미를 높이고 있다. ▲



Nouveau silver tableware 세라믹, 유리, 은, 2021



Nouveau cannule tableware 세라믹, 유리, 골드, 2021



Nouveau silver saladbowl, wineglass 세라믹, 유리, 은, 2021



Nouveau ceramic wineglass 세라믹, 유리, 골드, 2021



Nouveau goldpearl tableware 세라믹, 유리, 골드, 2021



Nouveau teapot set 세라믹, 유리, 골드, 2021



## SPECIAL REPORTS

금속공예분과

## 자연을 이야기하는 금속작품

조 유 진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금속공예분과



바다이야기 II 425x110x90mm, 92.5%은선, 코팅된 동선, 유리구슬, 1987

금속공예와의 만남은 1978년 홍익대학교 3학년 부터였다. 금속공예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던 시절 금속공예 전공을 하게 되었고, 기능이 있는 작품을 많이 제작했던 나는 홍익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4년 미국 유학(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길에 올랐다. 1980년대의 금속공예는 나에게 금속공예분야에서의 새로운 세상 신천지였다. 미국은 미술의 장르를 없애는 상황이었고 장신구와 조형작업을 같이하는 작가가 많았다.

그 당시 타 재료를 섞어서 작업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바다이야기 VI 70x70x130mm, 80x80x190mm, 90x90x220mm, 92.5% 은, 적동, 코팅된 동선, 1989

아크릴의 성형 및 염색, 코팅된 동선의 사용, 나무, 가죽 등 타 재료를 그 당시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학시절을 통해 단순한 금속의 색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크릴의 성형 및 염색, 코팅된 동선을 금속과 함께 사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유학시절 여름휴가에서 맹독의 핑크색 해파리가 해변 가득 밀려온 광경을 보고 작품의 주제를 바다이야기로 시작해서 수년간 그 작업을 진행했다. 바다생물의 움직임과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군집을 이루어내는 조형성을 표현했다.



Once Upon A Time I 320x280x300mm, 92.5%은선, 코팅된 동선, 2004



Once Upon A Time VIII 60x50x10mm  
24K금, 99.9% 은, 18K 금, 철, 2006



Once Upon A Time IX 40x70x10mm  
24K금, 99.9% 은, 18K 금, 철, 2006

그 시기가 지난 후에는 식물의 형태와 새의 형상을 접목시킨 시리즈 작업으로 금속의 성형과 알루미늄 에노다이징의 색의 오묘함을 기능성 있는 기의 형태에 접목시킨 작업과 장신구에 표현하기 시작했다.

현대인이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자연 속에서 느끼는 안도감, 편안함, 정신적인 안정감을 자연의 컨셉과 스토리를 통해서 금속공예 작품에 표현하고자 한다. 정밀주조기법, 목금기법, 크로세기법, 위빙, 여러 가지 원석, 알루미늄, 가죽, 종이 등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조형감과 미지의 세계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



Cloudy & Emotion VI 60x55x30mm, 92.5% 은, 티타늄수정, 2015



Cloudy & Emotion IV 80x50x30mm, 92.5% 은, 티타늄수정, 18K 금도금, 2015



## SPECIAL REPORTS

도자공예분과

## 꽃과 새를 품은 화조-陶

임헌자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도자공예분과

임헌자는 도자 공예작업과 함께 옷칠을 콜라보한 평면조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예도자 작업에서도 주로 꽃을 주제로 한 장식적 요소가 있는 작업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평면조형 작업으로 도자 부조 작업 또한 꽃과 새, 나비가 주제인 ‘화조-도 시리즈’의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헌자의 ‘화조도(花鳥圖)’는 ‘화조-도(花鳥-陶)’이다. 12번째 개인전인 2013년의 전시에서 청자(靑磁)의 현대적 변용을 부조로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기물(器物)이 아닌 도자 부조 평면 작업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청자로 소성한 부조(浮彫)위에 한국적인 민화풍의 채색을 통해 전통적인 청자의 색과 민화적 구도와 색채를 융합하여 새로운 형식의 도자 회화를 만들어냈다. 그 작품 제작과정은 도자 부조를 붙일 바탕 나무판을 준비해 놓은 후 3벌 소성을 마친 도자 부조의 모양대로 상감기법 하듯이 바탕 판을 흙을 파내어 소성이 끝난 도자 부조 그림들을 메워 넣는 고된 과정이 있다. 또한 바탕판인 나무 위에 삼베 천을 붙이고 옷칠하여 마르면 사포로 갈고 칠하기를 5~6회 반복하여 진한 옷색 배경의 바탕작업으로 마감한다.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변용하려는 의도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는 우리가 친숙하게 봐왔던 것들이다. 꽃과 나비, 새, 곤충 등. 전통 회화의 한 종류인 화조도(花鳥圖), 민화에서 각종 꽃과 동물들을 소재로 삼았던 한국 전통예술의 특징적 요소를 도자예술로 환치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화조-도(花鳥-陶)’라는 명제가 붙게 되었다.

조선시대 궁중과 사대부에서 선호했던 모란도에 모란이 흐드러지게 화폭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면, 임헌자의 모란도는 빈 공간이 많다. 모란의 위세를 과시하지 않아도 향기가 그윽한 듯한 모란은 새와 나비와 적당한 거리감으로 여백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임헌자의 화조도는 조선 문인화의 구성을 닮았다. 화려하게 채색했던 민화와 정신적 세계를 중시했던 수묵화의 전통이 한데 어우러짐과 유약과 채색의 유광과 무광 계열의 색을 고르게 안배함으로써 화려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발랄함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감을 유지해주고 있다.



모란의 사랑 청자, 상회채색, 삼베옷칠.  
650X1500cm 2020



모란의 행복 청자, 상회채색, 삼베옷칠.  
650X1500cm 2020

단아하게 핀 꽃들과 새와 나비가 날아들고, 물고기는 연꽃 사이로 튀어 오른다. 우리의 민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들이다. 이는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장식성과 실용성을 갖춘 민화가 100여년 전 우리의 주거 공간을 꾸민 것처럼 임현자의 ‘화조-도(花鳥-陶)’는 공예 예술이면서도 도자 회화의 한 영역으로서 자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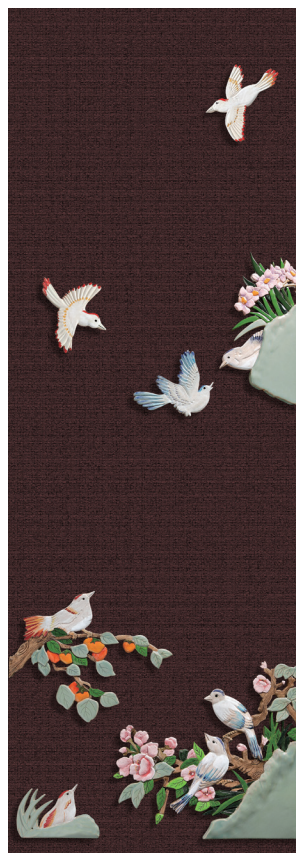
임현자는 현재 단국대학교 도예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공예가협회, 한국현대도예가협회, 한국도자학회, 기초조형학회, 한국사발학회, 한국여류도예가협회등 단체에서 활동하며 매년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 경험을 바탕으로 화경도예회 회장 역임, 현대도예가협회 상임이사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도자학회 부회장, 한국사발학회 회장, 한국여류도예가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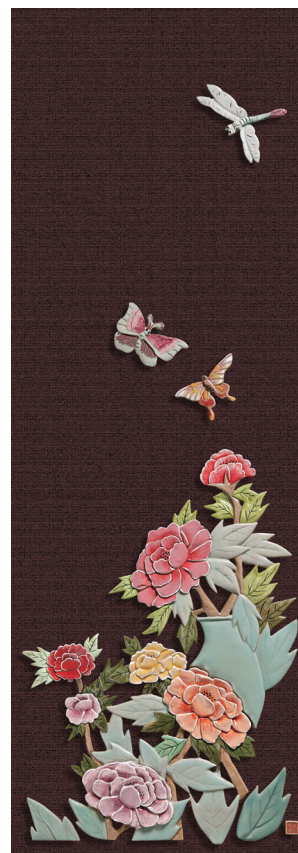
**모란의 꿈** 청자, 상회채색, 삼베옷칠  
300X1200cm 2022



**행복담기** 청자, 상회채색, 삼베옷칠  
300X 1200cm 2022



**천상의 세계** 청자, 상회채색, 삼베옷칠  
800X2200cm 2017



**부귀** 청자, 상회채색, 삼베옷칠  
800X1800cm 2017



## SPECIAL REPORTS

섬유공예분과

## “되돌아 보다” 50년 회고

김영신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섬유공예분과

유년시절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내 베개 -  
형겔조각을 말아 오므린 꽃잎모양을 하나  
둘 동그렇게 붙여나간 색색의 베갯모 - 가  
생각난다.

이불장을 열면 요 이불 옆으로 베개들의  
베갯모가 식구 수 데로 색색이 쌓여 있었  
다. 학 문양, 자수글씨를 수놓은 베갯모,  
손으로 박음질한 네모 베갯모, 꽃잎문양  
베개 등등

대학원논문의 제목으로 많은 고민 중 어  
릴 적 기억이 새삼 떠올라서 이와 관련된  
“조선조 보와 흥배의 문양연구”의 논문을  
쓰게 되었으며 전통문양과 자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후 나의 작업에 바탕이 되  
었다고 할수 있다.

1970년 대학을 졸업하고 중 고등 학교에  
서 미술교사로 2년을 근무한 후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 디자인론 과 공예사 이  
론을 탐구하고 염색의 이론과 실습을 강  
의하며 다양한 실습기법을 습득하였다 건  
강과 육아로 염색실습을 파라핀 사용을  
하지 않는 천연염색의 방법을 가르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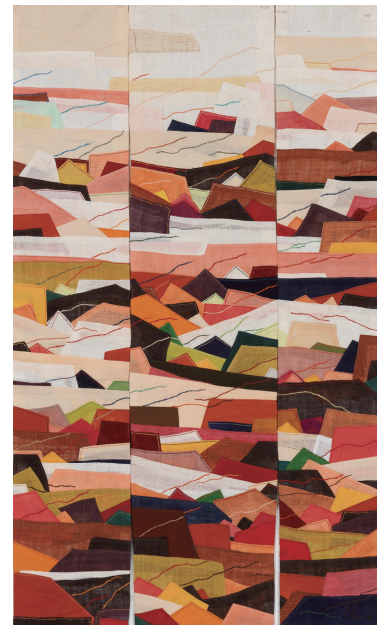
1980년대 부터는 대학원에서 수강하였던  
직조의 전반에 몰두하여 학생들도 직조틀  
을 이용한 타피스트리 제작방법과 수작업  
을 이용한 바스켓, 깔개 받침과 벽걸이 등  
의 생활용품 제작으로 해마다 하는 졸업  
전에 풍성한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었다.  
직조기와 부속품들과 실을 구입하고 사용



여정 91×65cm, 닥종이, 각종 섬유, 자수기법, 2022



풍경 100×130cm, 면, 마, 모시, 자수기법, 1997



풍경 70×100cm, 면, 마, 모시, 자수기법, 2022

보자기(창)  
60×60cm, 모시, 삼베, 1996



보자기(끝없이 이어지는 선)  
60×60cm, 모시, 삼베, 1996



제작 방법의 실습을 수업과 함께 병행하니 어느날은 밤새 작업하는 날도 있게 되고 가정도 소홀하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와 결과물의 완성도가 형편 없을 때는 작품을 파기하기도 했다.

한작품 두작품의 타피스트리가 완성될 때마다 정신적 갈등과 육체적인 아픔의 결과물들이었다.

1994년 섬유미술 개인전은 섬유를 이용한 선과 면의 구성전개 작품을 30점 전시하였다 각종재질과 여러색상들을 삼각형, 사각형의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틀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거기에는 산이나 강이나 집들과 꽃이나 구름들이 서로 어우러져 환상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단순하며 경쾌한 구성이 과거와 현대의 어울림으로 조화되는 미를 표현한다.

1997년 6월의 개인전은 베를린 로호에서 20점을 전시하였다. 한국의 전통보자기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

고 삼베, 모시, 아마, 명주섬유 등을 사용하여 전통보자기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오방색의 풍경을 새롭게 구성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 보며 마을과 마을의 소통과 성장과 기쁨과 이야기 거리를 표현했든, 또는 푸른 바다위에 떠있는 섬마을 이웃들의 웅기종기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했든, 그들이 느끼는 데로 표현하여도 좋다.

1997년 7월 토론토의 공 갤러리에서는 로호 갤러리 전시 10점과 미발표한 10점을 추가하여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토에는 넷째오빠가 디자인 사무실을 하고 계셔서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새로운 소재 닥섬유와 닥종이를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여 작품배경으로 한복 천위에 중첩시켜 실루엣처럼 꽃의 형상을 떠올리기도 하며 각종자수의 바느질기법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정감있는 환상의 작품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50년의 수업들이 시대별로 여러 학문적인 관심작업들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종합적인 염직의 변화 작업이 나의 작업의 밑거름으로 아름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

50년을 회고하며 여러 가지 작품 중 일부만 남아 있어 정리하고 액자를 다시하여 44점을 전시할 수 있었다. 이 또한 해마다 몇 작품 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 일상 이었나 감사 한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는 나의 손길은 나의 무의식의 순화 작용일까 고통을 표현하는 것 보다는 한송이 꽃으로 밝게 피어나는 것이다.

나의 작업노트를 정리하고 나니 50년 나의 작품들이 어릴적 베갯모 문양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위안이 된다. ▲



이야기 40×40cm, 퀼팅, 각종 섬유, 자수기법, 2021



## SPECIAL REPORTS

유리공예분과

### “유리로 세상을 이름답게”

GLASS PARK-S.Y.P Art Space

박선영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유리공예분과



하늘이시여 150x100x300H, 2014  
HITE 소장

내 어릴 적 미술 시간 교정은 너무나 운 좋게도 성당 뒤 뜰이었다. 그림은 안 그리고 조용히 성당 안으로 들어가 쏟아지는 햇살 속에 빛나는 스테인드글라스의 화려하고 영험한 매력과 파이프 오르간의 연주에 매료되어 뭔지도 모르면서 멍하고 한참을 서 있었던 나의 어릴 적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어머니는 큰 의상실을 3개나 하는 바쁜 의상 디자이너이셨다. 그래서인지 많은 유명인 등이 다녀갔고 나는 남은 천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가위를 들고 인형 조끼를 만들곤 했다. 아버지는 건축일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거침이 없는 것이 부모님께 받은 유전자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응용미술과를 수학하다 유리공예를 배우고 싶어 새로 진학을 다시 하였다. 학부 2년 차에 가나아트샵 한 귀퉁이에 박선영 이름 석 자 올리고 싶어 무작정 사무실을 찾아갔다. 당시 유리 작가가 생소해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한 달 뒤 판매 금액이 들어왔고 추가 작품 오더가 계속 들어왔기에 작품 활동이 더욱 재미있어졌다.

졸업 후 유리 연구소에 1년간 있으면서 정말 많은 양의 작업량을 수치와 일정에 맞게 해내야 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업 등의 사회생활을 조금 접한 뒤 여성 3인이 공방을 만들어 여러 아트샵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각 각의 개인 사정과 결혼 등으로 나는 다시 2004년 GLASS PARK라는 공방을 오픈하여 개인전 8회, 해외 전시 10회, 단체전 100여 회 등을 했다. 2004년부터는 박선영 개인 작가보다는 GLASS PARK를 알리기 위해 회사명으로 해외 전시회를 다니며 경험을 쌓아 갔다. 작가로서 미술계의 아트 시장보다는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마치 코카콜라 병 디자이너 같은 공예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유리공예 중 주얼리 분야라 생각이 되었고 브랜드화시키려면 백화점 입점이 필수라 생각이 들어 신세계 백화점을 시작으로 직영 매장을 오픈하였다. 작가로서 100% 자체 공방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유리공예품으로만 채우는 일을 했다는 건 백화점 측에서도 신기했다.

한국의 유리공예를 세계로 내보내고자 하였다. 어느 해엔



한국의 비상 8000x1200, 2020 Fairmont-seoul 소장



플라워가든 250x250, 2010 취영루 소장, 교학사 미술교과서 수록



단아 50x350, 2015



선덕여왕 300x400x1000, 2017 청와대집무실소장



과거, 현재를 담다 250Ø, 350H 2022 Fairmont-seoul소장

홍콩 아시아 패션 주얼리 쇼에 GLASS PARK의 유리 주얼리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온 바이어들이 우리 부스에 들어와 디자인 당 40만 개씩 45일 후 납품을 주문했다. 그때는 100% 내 손으로 시작해서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작가이고, 정직이라 생각하며 다 돌려보냈다.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하여 Duty-free shop, Sky shop 등에 입점하여 새로운 공예시장을 만들어 보았다.

입점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 많은 수업료를 내고 나름 순풍이었다. 여덟 번의 개인전을 하면서 오브제 작품을 본 건축가는 건축재료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LG, 샘표, HITE, 모나미 등에서는 용기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조명 작품을 본 건축주는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 조명을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설치하였다. 팔만 대장경의 1000년 되는 해에는 1000년의 역사를 공예품으로 표현해달라는 해인사의 10인 작가로 선정되었다. 유리 주얼리, 식기, 조명, 건축 자재, 아트웍, 조형물, 용기 디자인 등등 소재가 유리라면 안 해 본 게 없는 것 같다.

작가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 '화려함'을 담았고 최근에는

'자연의 색'등을 표현하려고 한다. 이제는 색을 쓰더라도 간소하고 과감한 색을 과용한다. 그동안의 선택과 진중함을 놓았다고 할까? 작품을 만들며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당위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이다. 최근에는 오방색과 컬러테라피 등에도 관심이 많아 재미있는 작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팬데믹이 온 그 시절 공방을 이전 하여 새로운 인생 궤도를 수정한 즈음에 어렵게 노력했던 면세점 시장에서는 아웃되었지만 아트웍 프로젝트가 계약되어 2년 반 동안 신나게 작가다운, 나다운 작업을 할 수 있어 너무도 감사했다.

새로 건축물이 들어서면 1층 로비나 공용부 등의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이나 조각품, 현대공예, 오브제, 설치물, 미디어아트 등등의 예술 작품을 디렉팅하는 총괄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의 여정으로부터 작가의 마음도 소재의 특성도 접해본 경험치를 얻은 덕분이 아닐까 싶다. 공간에 생명과 아름다움을 주는 작가이자, 여러 분야의 작가들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아트 디렉터로 세상 공간의 영원의 빛을 줄 수 있는 S.Y.P Art Space가 되겠다. ▲



## DISCOVERY

금속공예분과

## 한국의 美

황혜미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금속공예분과

나의 작업은 한국 전통문양에서 시작되었다. 건축, 미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 작품으로 표현되어져 온 한국 전통문양에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발자취가 담겨져 있으며 한국의 미와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한복집을 운영하셨던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나는 어릴 때부터 한국 전통문양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나의 경험과 생각이 작품에 투영된 것 같다.

전통문양 중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연꽃, 영지버섯, 석류, 복숭아, 포도, 오얏, 모란 문양을 모티브로 한 은 잔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차로 끓여 마시거나 술로 담그어 마실 수 있는 것을 모티브로 선정하였으며 잔의 겉면에는 모티브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안쪽은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 고유의 전통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문양의 예술적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미감이 어우러진 작품 제작을 통해 전통문양의 우수성을 재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나의 작업이 한국 전통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화 60x45x60mm, 925 Silver, 14K yellow gold



매화 62x25x62mm, 925 Silver, 14K Pink gold



난초 55x52x55mm, 925 Silver, 14K yellow gold



대나무 48x60x48mm, 925 Silver

## DISCOVERY

도자공예분과

## 웅진요

양미숙 |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도자공예분과



웅진송월 웅진분청유, 웅진분청토, 산화철, 경덕진청화, 2022

계룡산 도예촌의 좁다란 골목 끝에 위치한 웅진요는 ‘계룡산 철화분청사기’를 빚는 공방이다. 마당에는 크고 작은 가마가 늘어서 있고 마당 안쪽 전시장으로 들어가면 큼직한 기물의 철화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어문이나 당초문이 새겨진 전통적 계룡산분청 작품과 문인화 풍의 서정적인 작품 등 필력 좋은 그림이 특징이다. 기형의 규모나 묵직한 분위기로 인해 나이 지긋한 남성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웅진요의 운영자는 여성 작가 양미숙이다.

작가 양미숙은 73년 대전에서 태어나 92년 대학에서 도예에 입문하였다. 2000년 계룡산 도예촌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철화분청사기 제작과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질박한 태토와 따듯한 분장토, 결정이 아름다운 철화 안료와 그에 맞는 재유로 작가만의 색을 구현하기 위해 걸린 20여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현재의 작품들 중 백미는 소나무 시리즈일 것이다. 웅기 제작기법으로 빚은 기물에 그려진 소나무에서 철은 검붉고 강인한 기동과 가치가 되고 청화는 영원히 푸르른 솔잎이 된다. 재료 면에서 적정 발색 온도가 크게 다르고 분위기마저 대비가 강한 철과 청화가 한그루의 소나무를 이루는 조화로움이 탁월하다.

좋은 도자기는 작가의 생업을 통해 이룬다고 하였던가? 20여년 계룡산분청 연구에 전념한 작가의 꿈은 ‘100년 웅진요’를 만드는 것이라 한다. 계룡산철화분청사기는 단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웅진요의 철화분청사기는 2대 3대의 생업을 통해 21세기를 넘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당당한 한그루 소나무처럼... ▲



곰나루에서 웅진분청유, 웅진분청토, 산화철, 경덕진청화, 2022





## 현대 공예가는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김 승 희 | 금속공예분과

지난 11월 어느날 서울공예박물관 학예 연구실로부터, ‘공예로 보는 시대감각’이라는 주제의 약 2시간 분량의 강의를 의뢰받았습니다.

2021년 7월 서울의 문화, 역사 중심지인 안국동 옛 풍문여고 자리에 한국 최초의 국립 공예박물관이 개관되고 어느덧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에 서울공예박물관(SeMoCA)의 강의 요청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강의 방향을 정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craftmuseum.seoul.go.kr](http://craftmuseum.seoul.go.kr)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개관행사와 맞추어서 현대 공예 기획전(1960년대이후 작업) ‘공예, 시간과 경계를 넘다’ 1부(2021. 7. 16.~10. 24 도자, 목공, 유리), 2부(2022. 6. 14~8. 15 금속, 섬유, 옷칠)이 열렸고, 이어서 금속공예 기증 특별전 (2022. 9. 27~11. 27)이 진행돼 비교적 전시장을 여러 번 방문할 계기가 많았지만, 홈페이지는 처음 들어가 본 것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공예매계실험장 같다고나 할까?. 특히 어린이 박물관 프로그램은 공예장인들의 시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매우 활성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시 작가 공모는 <공예@박물관>의 형태로 원도 작가선정과 전시장 내 혹은 야외에서도 지원자의 기획안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전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접근할 수 있는 지원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받아주고 전시 기획으로 모두에게 열린 박물관이라는 점. 한 가지 제약이 있다면 서울시민을 우대한다는 것 뿐입니다. 서울시장이 주관하여서 서울공예박물관이 설립된 만큼 대중적 소통의 장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은 가장 바람직한 장소입니다. 우



선 접근성도 좋고 공예라는 매체는 참으로 친화력이 있는 분야인 것이 분명하기에 대중적 표심을 헤아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공예 분야가 권력 집약적인 정치권에서 관심 분야가 되고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기획한 전시내용을 살펴보면, 윗글에서 언급한 대중적 소통의 장으로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된 전시 중 몇 전시만 잠시 들여다보면 곧 이들의 전시영역은 방대하고 섬세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취미 공예, 민속, 지역공예 기획전도 있었고, 서울 무형문화재 장인공예전, 개관특별전인 현대공예

작가전, 로에베 재단 공예상 등 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가면, 음악공연과 공예 등 다양함 속에 역사적 한국 공예에 관한 이론강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프로그램중 하나는 SeMoCA 공예지식 강좌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 우리나라 금속공예 유물에 관한 강좌로 ‘한성미술품제작소와 은공예’ 정지희 등 관심 가는 내용 중에서도 드디어 ‘공예로 보는 시대 감각’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2022. 11. 14(월) 구본창 사진작가의 ‘백자의 숨결을 사진에 담다’ 였는데 ‘백자의 숨결’ 그 자체 단어만 보아도 상당히 감각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제 강의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김승희의 따뜻한 금속 이야기’라는 감각적인 제목으로 금속공예 50년의 도전과 변화, 그리고 남은 과제와 가능성에 대하여서 진술하고 자연스럽게 발표하였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작품 사진과 더불어 설명을 끝내고 질의 응답시간에 수강 참석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었습니다. 뜨겁고 흥미롭게 약 40분간 진행되었기에 이번 저의 특강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침체되어있는 공예계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는 공예작가들에게 이러한 박물관의 과감한 대중적 행보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서울공예박물관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아서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학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예가협회 회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과가 폐쇄되는 현 상황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때마침, 박물관에서는 ‘공예의미래 - 서울공예박물관의 전략’ 2022. 12. 5(월) 14:00~17:00 라운드테이블이 진행

되었습니다. 토론회 패널은 김홍남(서울공예박물관 명예관장), 최공호(전 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최은주(전 대구 박물관장), 허윤희(조선일보기자, 모더레이터), 김수정(서울공예박물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5분의 패널 외에 한국공예가협회를 비롯한 공예단체장들이 패널로 참석하였다면 더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회는 편집 과정을 끝내고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시청해볼 예정입니다.

1976년 국민대학교에 금속공예전공을 개설하고, 그 해 한국공예가협회 회원으로 입회하면서 꾸준히 활동해온 저는 그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서 끈기 있게 활동하는 협회의 모습은 마음 편하고 너그러운 친정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의 공예작가들은 한 테두리에서 공예에 대한 애정과 발전 그리고 확대되기를 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 외에 무슨 특별한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버린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보았습니다.

이제 한국 최초의 국립공예박물관이 서울 한복판 인사동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바로 옆에 우뚝 세워진 시점에서 한국공예가협회 회원들은 새로운 동기부여를 찾아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 줄것을 기대해 봅니다. 서울 공예박물관은 누구나 모두가 참여하는 대중적 박물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공예가협회에서도 서울공예박물관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그동안 축적해 놓은 현대 공예교육의 자산을 잘 정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엮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공예박물관 상설전에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타이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한국공예가협회 회원님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지요!

공예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마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 CULTURE COLUMN

문화칼럼

##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미국 목공예 작가 SCARLETTE ROUSE CASE

성별, 전공, 나이, 환경을 뛰어넘어 전문인이 된다.

이 정 희 | 국제보자기포럼 대표,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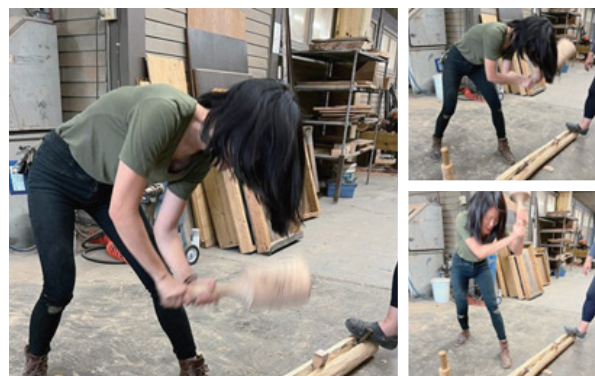
2017 필자는 미국 테네시주 개트린버그 (Gatlinburg), 시에 소재한 Arrowmont School of Arts and Crafts <https://www.arrowmont.org/>에서 내 자신의 작업의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내 전공이 아닌 도자 수업을 받고 있던중, 내게 흔하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다.

Arrowmont는 미국 내에 우수 공예 학교로 공예 전반, 섬유, 금속, 목공예, 도자, 조각 등의 수업을 일년 내내 진행하는 인지도 매우 높은 학교이다. 강사진은 주로 대학교수들로 David Ellsworth, John Jordan, Beth Ireland, Al Stirt, Nick Agar 등을 들 수 있다.

수업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 수업을 듣기 위하여 등록금과 집중된 마음 가짐을 가지고 온다. 때로는 수강 신청 학생들이 넘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기다렸다가 수업에 들어 오기도 한다.

각 전공의 시설은 필자가 보아온 웬만한 대학의 시설을 능가하는 데에 놀라웠다. 미국 내, 많은 여러 공예 학교중에 Haystack Mountain School of Craft (<https://www.haystack-mtn.org>)과 더불어 미국내 대표적인 공예 학교이다. 이 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내 자신도 수십년간 익숙한 나의 전공이 아닌 ceramic 수업을 받으면서 특이한 case를 보게 되었다. 주로 남성위주에 교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목공예과에서 어느 50대 후반에 여성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흥미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Scarlette Rouse 는 목공예에 전공자가 아닌 경우로 어떻게 복잡하고 중장비 기계들을 다루는 목공예과에서 강사로 일하는지 신기하여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목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어렸을때부터 목가구에서 나타나는 여러 흥미로운 나무결 무늬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어다 한다. 수년 후에 집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Arrowmont Class scenes Scarlett Rouse 수업 장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게 되었다 하였다. 인터뷰에서 그녀 자신이 자신의 성격을 표현하기를 ‘한번 하고싶은 일은 어찌 하든지 꼭 해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였다. “나의 목공예 관심은 지극히 작은 일에 있었다. 우연히 2007 년도 TV 에서 나무를 가지고 펜대를 만드는 것을 보고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는 목공 동호회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Arrowmont 학교에 수업을 받으면서 나의 나무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생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 차차 조교가 되고, 이후 Team teaching 강사가 되었다. 현재로는 단독 교사로



Scarlette Rouse (61세)  
Seven Springs, North Carolina



Scarlette Rouse 작품



Scarlette Rouse 작품

서 가르치고 있다” 하였다. 그녀가 처음 수업을 받을 때는 유일한 여성이었다고 했다. 지명도 높은 학교에서 늦은 나이에 비전공자로서 강사로 일한다는 것이 그녀의 실력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2017년 조교에서 강사가 되는 과정을 통하여 다섯분의 강사들의 수업을 도우면서 강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방법을 옆에서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는 입은 다물고 눈과 귀를 열면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조교였을 때는 내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었는데 교통비를 지불해가며 다닌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배우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다. 강사가 교실에서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요점이 전달 되었을 때에 학생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희열에 찬 표정이 나에겐 감동이다.” 하였다.

52세 때부터 목공예에 집중하며 전혀 새로운 분야에 성실히 도전 하였다는 것과 남성 위주의 분야에서 당당히 여성으로서 전문가 위치에 도달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되었다. 최근에는 자신에 농장내에 있는 거주지를 목공예 자료를 구입하여 본인이 손수 인테리어를 모두 고쳤다고 한다. 과외 활동으로는 어린이 환자들 (어린이 환자들 암, cancer, 심장병 heart disease, sickle cell disease 심

한 중병 낮형세포형, bad burns, 심한 화상 prematurely born, 조숙아에게 희망을 나타내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box 54세에서부터 시작) 나누어주고 있다. 처음에 혼자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일을 돕는 동호인들이 생겼다고 한다. 2개의 어린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517개의 박스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일종의 재능 기부가 되는 활동이다. 너무 시간적으로 벅찰 때에는 상자를 직접 만들지 못하고 기존의 상품으로 나와있는 상자를 기증 또는 구입하여 아동이 희망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일을 앞으로도 꼭 지속될 일이라 한다. 이 일을 통하여 배운 것을 주변 동호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하였다. 재능 나눔 기부로 그림 그리기, 나무 깎아내기 등을 가르치게 되어 배운 기술을 주변 동호인들과 나누며 회전 시킨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출강 예정된 학교는 North Carolina John C Campbell Folk School 과 Massachusetts Snowfarm Craft School 에서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해달라 했더니 “I often say if I keep my mouth shut and my eyes and ears open, I can learn.” “입은 다물고 눈과 귀를 열면 많은 것을 배울수 있다.”라고 하였다. ▲



Arrowmont School of Arts and Crafts 수업중



The Carolina Mountain Woodturners 에서 Scarlett Rouse 강연 장면



# NEWS

## 개인전

### 금속공예분과



**황혜미 개인전**  
2022.01.05-01.10  
KCDF Gallery 2F 제3전시실



**윤상희 개인전**  
2022.01.11-01.15  
서귀포 예술의 전당



**강명균 개인전**  
2022.03.15-04.02  
서담재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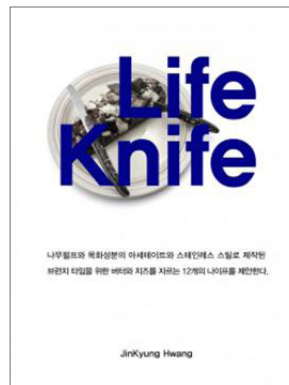
**백한승 개인전**  
2022.07.27-08.11  
서진아트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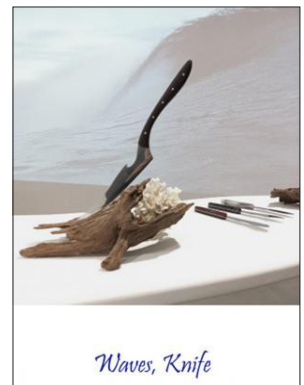
**조유진 개인전**  
2022.11.23-11.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비치관2층미술관



**신혜정 개인전**



**황진경 개인전**  
2022.10.25-10.31  
gallery L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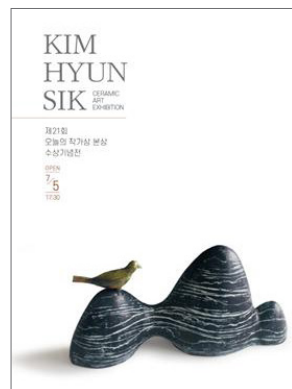


**황진경 개인전**  
2022.11.24-11.30  
Kaan

## 도자공예분과



진영섭 개인전  
2022.11.30-12.29  
갤러리 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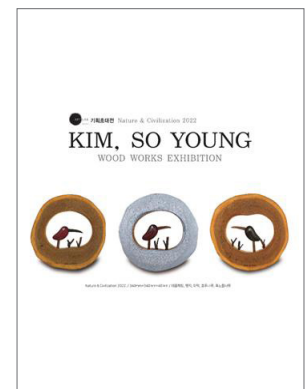


김현식 개인전  
2022.07.05-07.10  
금련산갤러리



서동희 개인전  
2020.09.27-12.27  
바이블 도자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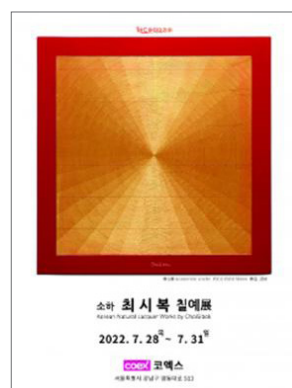
## 목칠공예분과



김소영 개인전  
2022.02.15-02.26  
아트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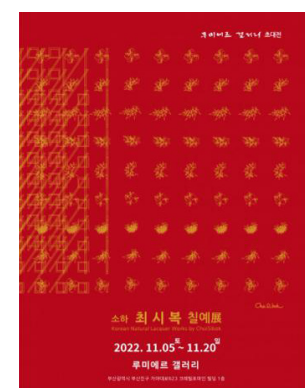
김소영 개인전  
2022.08.11-09.13  
BRICKFIELD MUSEUM



최시복 개인전  
2022.07.28-07.31  
핸디아트코리아 코엑스



양점모 개인전  
2022.09.27-10.15  
이천아트홀 전시관



최시복 개인전  
2022.11.05-11.20  
루미에르 갤러리



## NEWS

## 개인전

### 목칠공예분과



#### 김군선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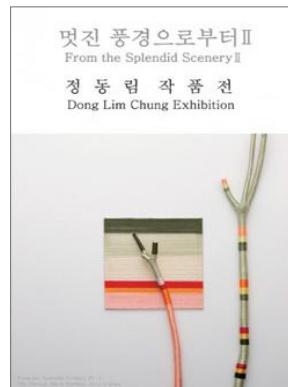
2022.12.01-12.04  
k-핸드메이드페어 코엑스

### 섬유공예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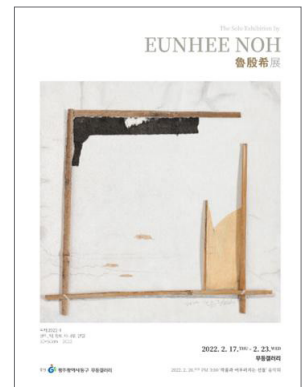
#### 장영란 개인전

2022.01.02-02.27  
롯데갤러리 5층 제1전시관



#### 정동림 개인전

2021.02.27-2022.01.04  
Gallery Ilsang



#### 노은희 개인전

2022.02.17-02.23  
무등갤러리



#### 조영주 개인전

2022.02.23-03.01  
Gallery is 제4전시장(B1)



#### 장영란 개인전

2022.6.23~6.23  
서울무역전시장(SETEC)1관 특별 부스존



#### 류명숙 개인전

2022.08.08-08.13  
항담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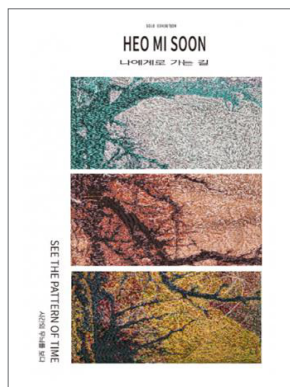


#### 정경연 개인전

2022.08.31-9.19  
구구갤러리(인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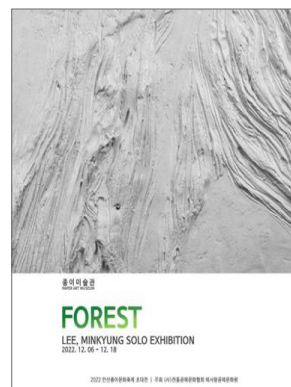
김영신 개인전  
2022.11.02-11.13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허미순 개인전  
2022.11.16-11.22  
KCDF갤러리 1전시장



한승희 개인전  
2022.12.14-12.19  
이상아트스페이스



이민경 개인전  
2022.12.06-12.18  
종이미술관

## 유리공예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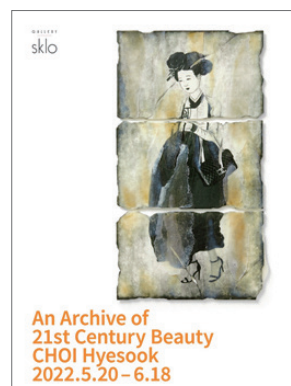
김한국 개인전  
2022.06.14-06.24  
Gallery 41



김준용 개인전  
2022.06.28-08.06  
Gallery WANNMUL



곽동준 개인전  
2022.6.20-7.25  
KIMI Art Gallery



최혜숙 개인전  
2022.05.20-06.18  
Gallery SKLO



## 1. 기부금 후원 안내

※ 기부금후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82-960916

예금주 사단법인한국공예가협회

※ 목양공예상기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402-996381

예금주 사단법인한국공예가협회

## 2. 목양공예상 및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가나다순) 2013년 - 현재

번호	명 단	기부금
1	강찬균 고문	680만원
2	고문자 원로회원	350만원
3	고성종 원로회원	330만원
4	곽대웅 고문	630만원
5	故권순형 고문	330만원
6	김덕겸 고문	680만원
7	김명태 회원	330만원
8	김승희 회원	30만원
9	김영순 원로회원	300만원
10	김지희 고문	680만원
11	김재영 원로회원	300만원
12	박숙희 고문	450만원
13	박형철 고문	680만원
14	서길용 고문	300만원
15	서한달 고문	330만원
16	안덕춘 회원	300만원
17	오순희 원로회원	300만원

번호	명 단	기부금
18	오원탁 원로회원	330만원
19	윤 근 고문	330만원
20	이광진 고문	330만원
21	이성순 고문	430만원
22	이신자 고문	300만원
23	임옥수 회원	300만원
24	故임홍순 고문	30만원
25	장영란 이사장	1000만원
26	정경연 회원	300만원
27	정복상 회원	300만원
28	정영환 고문	760만원
29	정옥란 원로회원	630만원
30	정용주 원로회원	300만원
31	정해조 고문	300만원
32	조규춘 회원	300만원
33	조병학 회원	300만원
34	조정현 고문	650만원
35	최승천 고문	680만원
36	최현철 고문	650만원
37	추원교 고문	300만원
38	한길홍 고문	300만원
39	홍정실 원로회원	300만원

## 3. 2022년 기부자 명단

번호	명 단	기부금
1	윤근 고문	300만원
2	홍동희 이사	300만원
3	전경화 이사	300만원

#### 4. 신입회원 회비 및 정회원 회비 안내

- 신입회원 회비 24만원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7만원, 협회전비 7만원
- 정회원 회비 14만원  
연회비 7만원 (매년 1월까지 납입시 6만원)  
협회전비 7만원

##### ※ 회비납입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402-960916  
예금주 사단법인한국공예가협회

##### ※ 각종 사업비

우리은행 1005-981-960916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공예가협회

#### 5. 2022년 신입회원, 재가입 소개 (2022년 상·하반기)

##### 2022년 신입회원 54명

- 금속 김형 민복기 서정화 이희진 조성호
- 도자 양지운 이예솔
- 목칠 강문수 김소윤 김수희 나수연 박이화 신영아  
이애나 한동엽
- 섬유 강선영 고금화 구아민 권주영 김다혜 김수현  
김양미 김효원 노현민 도주희 배소라 서 원  
신미혜 신혜정 오정민 유윤경 유지는 이민경  
이상미 이주희 전효주 정은경 조연경A 조영희  
장유진 장용석 정은숙 진은주 최현숙 최수영  
최지영B 최현숙 최향정 추상아 한승희 한정혜  
황주현 황리아
- 유리 서명수

##### 2022년 재가입 39명

- 금속 김승희 김영선 서은성 이태숙 정승은 조정희  
최정윤 허순영
- 도자 김기종 김태전 류재만 양미숙 유남숙 임상채  
임진호
- 목칠 남궁선
- 섬유 고민희 김영숙 김은영 나미경 박상은 박소영  
박향숙 양순영 오현숙 유윤경 이미숙 이정아  
이정희 임혜숙 장연순 전경화 조연경B 최진희  
허미순 홍동희
- 유리 김현철 김준용 이지예

#### • 2023년 신입회원 모집

한국공예가협회와 함께 할 신입회원을 연중 모집합니다.

입회원서는 한국공예가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www.craftkorea.org>

#### 6. 2022년 고문추대

고문 추대에 관한 정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2년 고문으로 추대

- 도자공예분과 이광진 (전 이사장)

#### 7. 2022년 원로회원

정관 제24조 2항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 회원으로써 협회 작품 활동 30년 이상 활동을 해온 회원을 추대한다.'에 의해 아래와 같이 2022년 원로회원으로 추대함

- 목칠공예분과 김명태, 정복상

#### 8. 2022년 감사

- 일 시: 2022. 1 28(목) 정오
- 장 소: ZOOM 비대면 회의
- 내 용: 2020년 회계 및 행정 감사  
2021년 회계 및 사업 계획
- 감 사: 목칠공예분과 김군선, 섬유공예분과 정동립

#### 9.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22. 2. 26(토) 오전11시
- 장 소 : 비대면(ZOOM) 화상 회의
- 내 용 : 2021년 회계 및 행정 감사  
2022년 회계 및 사업계획

#### 10. 2022년 회원의 밤 · 송년모임 취소

회원의 밤은 '코로나 19' 재확산 및 국가재난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회원의 밤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2022년 목양공예상 및 한국공예가협회전 시상식은 2023년 5월20일 특별전시 오픈식날 진행 될 예정



## 11. 2022년 공예주간 특별기획전

2022. 5. 20(금)부터 6. 2(목)까지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사)한국공예가협회에서 공동 주관한 공예주간 특별기획전 ‘한국현대공예飛上展’ 전시에 본 협회 회원 141명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최



## 12. 제49회 한국공예가협회전

제49회 한국공예가협회전 ‘한국공예, 창의적여정 K-CRAFT, CREATIVE ITINERARY’ 전시가 2022. 10. 22(토)부터 10. 30(일)까지 8일간 금보성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고문 19명, 원로 18명, 금속 47명, 도자 43명, 목칠 42명, 섬유 87명, 유리 14명 총 270명의 회원 출품



## 13. 제32회 목양공예상 및 심의

- 일 시: 2022. 10. 22(토) 오전11시
- 장 소: 협회 사무국
- 참석위원: 장영란 이사장, 광대웅, 김덕겸, 박숙희, 박형철, 서길용, 서한달, 윤 근, 이광진, 이성순, 추원교, 한길홍 고문
- 심의결과: 섬유공예분과 오순희 원로회원 선정
- ※ 시상식
  - 2023년 5월 20일(토) 공예주간 특별전시 오픈식날 진행 될 예정

## 14. 제48회 한국공예가협회전 수상자 명단

- (사)한국공예가협회상: 섬유공예분과 이상영
- 젊은작가상 : 목칠공예분과 박찬훈
- 금보성아트센터관장상 수상자: 목칠공예분과 김광렬, 박병호, 이하영
- ※ 시상식
  - 2023년 5월20일(토) 공예주간 특별전시 오픈식날 진행 될 예정

## 15. 2022년 분과 사업

### • 섬유공예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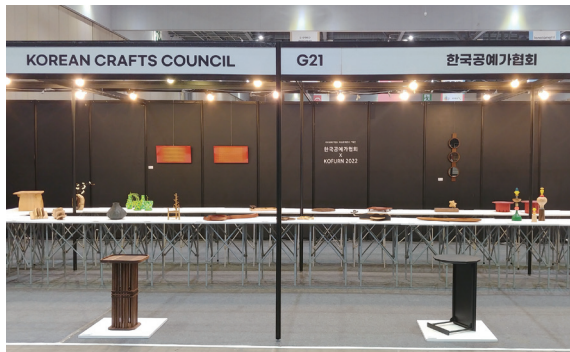
2022. 5. 3(화)부터 5. 6(금)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 한인문화회관 전시장에서 '제3회 한국예술제'의 일환으로 '한국섬유예술전'에 초대되어, 한국섬유공예와 조형 창작의 아름다움을 섬유공예분과 회원 12명 참여로 개최



### • 목칠분과 기획전

'2022 KOFURN X 한국공예가협회'

2022. 8. 25(목)부터 8. 28(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한국공예가협회 목칠공예분과 회원 25명 참여로 개최



## 1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 개발원 MOU 체결

2022.3. 9(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교육 개발원 서울거점 공예창작지원센터조성 계획으로 공예문화 확산 및 상호교류협력하기로 함

## 17. 한국잡월드 메카이브 후원

2022. 8 메카이브 청년작가지원사업 후원

## 18.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MOU 체결

2022. 12.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20개국 내외 주한 외교사절과 국회기재위원장, 국회문체위원장 등을 모시고 '윤상현 국회의원' 주최의 정부조달문화상품 세계화를 위한 '제9회 국회특별기획전'을 통해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와 (사)한국공예가협회가 조인식을 가졌으며 한국의 공예문화계승발전 및 보급 활성화, 공예문화상품과 정부조달품등록의 연계 활성화 및 세계화, 상호교류협력하기로 함



## 19. 국립공예미술관 제안서

2022. 3. 28 한국공예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예미술관건립제안서를 장영란 이사장, 구아민(전 상임이사), 신지혜 상임이사가 작성 검토후 대통령추진인수위원회에 제출

## 20. 청와대 미술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지지 성명서

2022. 8. 5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청와대 미술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지지 성명서 제출

## 21. 제49회 협회전도록 수록 후 작품 미출품자 명단

- 금속공예분과 윤경아 윤재원 차경철 홍정실
- 도자공예분과 김중기 박경희 이정석 조병하
- 목칠공예분과 배연희 오현성 이상일
- 섬유공예분과 신경하 이미지 정현경





PETER KWON  
SEATAC CITY COUNCIL



2022.9 미국 SEATAC CITY 부시장 피터권  
본 협회에 감사 후원함



TOTAL TEXTILE  
DESIGN ACADEMY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65 2F

Office : 02-549-1220 Fax : 02-514-5384

E-mail : iccademy@naver.com

Site : www.iccademy.co.kr

Blog : blog.naver.com/choonsup8701

Textile Design Academy



01

## TEXTILE DESIGN

###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은 섬유원단 위에 자유로운 회화와 정제된 디자인의 여러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조형 행위를 말합니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공예적, 회화적인 요소와 평면적, 구조적인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 다른 디자인 분야와 비교적 쉽게 융합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텍스타일 디자인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영역 또한 패션, 인테리어 침장, 벽지, 스포츠웨어, 언더웨어, 가방, 스카프, 시카, 제품, 건축 등 토털 라이프 스타일 분야로 확장되어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02

## INTRODUCE

### 아이씨씨아카데미

아이씨씨 아카데미는 1993년 현 아카데미의 원장이 최초 설립하여 지금까지 실무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텍스타일 디자인 전문 교육학원이자 연구센터입니다. 전공자를 비롯해 비전공자들도 집중 훈련하여 대학 교육현장과 회사 실무현장에서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으며, 실제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 나아가 실장 및 대표자가 되어 강력한 선후배 커넥션과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3

## CURRICULUM

### 실무 교육 과정

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은 실무 투입을 목표로 하루 7시간씩 적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동안 핸드드로잉, 캐드드로잉 수업으로 강도높게 이루어집니다. 과정 종료 후 28개 작품을 완성하며 실무 텍스타일에 필요한 모든 기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정규과정 월~목 핸드+캐드  
하루 7hr 오전 오후 중일수업

단과과정 월~목 핸드/캐드 중 택1  
하루 3.5hr 오전 또는 오후수업

04

## RELATED COMPANY

### 취업 관련 회사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졸업생에 한하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에 인재 추천하고 면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카데미와 관련한 회사는 패션, 침장, 벽지 등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2019년 35명 (did벽지, 세사리빙, 코튼클럽, Nobland...)

2020년 30명 (신세계인테리어, 지주, 알레르망, 한섬...)

2021년 33명 (한세실업 모이폴론, 신영섬유, 동진침장...)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9길 65

www.iccademy.co.kr



 교동미술관



1종 등록 사립미술관

(550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89 (풍남동 3가 67-9)  
TEL : 063-287-1245 / FAX : 063-286-1245  
Email\_gyodongart@naver.com  
www.gdart.co.kr

# 2023 국제 섬유 International 아트 Fiber 페스티벌 Art Festival



2023. 5. 11 ~ 5. 21

예술의전당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Seoul Arts Center Hangaram Design Museum



www.artcraft.or.kr



제24회 익산

# 한국공예대전

금속공예 · 도자공예 · 목·칠/가구공예 · 섬유공예

순수예술작품으로 공예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금속공예부분은 보석도시·익산의 특성상 귀금속보석장신구 포함

## ■ 작품 접수

### 1. 1차 접수: 이미지 접수

1) 기간: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21일(화) 17시까지 <22일간>

2) 방법

- ① 작품사진: 300DPI 이상, 1MB이상 10MB 이하 JPG 이미지 파일
  - 평면작품 2장(Front, Detail 각 1장)
  - 입체작품 3장(Top, Front, Side 각 1장)을 웹하드 접속 해당부문 폴더에 본인명의로 폴더 생성 후 올리기  
(웹하드 주소: www.webhard.co.kr ID: artcraft6767, PW: ikj4567)  
※ 작품크기는 정확히 기록할 것(단위까지 기록 요망)
  - 귀금속 보석 장신구는 입체와 평면의 위치 및 수량을 기준으로 작품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올리기
  - 웹하드에 올리기 착오시 협회 사무국에 필히 수정 요청
- ② 출품신청서: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받은 작품출품 시 본인명의로 폴더에 올리기  
※ 온라인 이미지 접수는 11월 21일(화) 17시 이후는 입력이 불가능함

### 2. 2차 접수: 실물 접수

- 1) 기간: 2023년 11월 28(화)<당일에 한함> 오전 10:00 ~ 오후 5:00  
(1차 심사에서 선별된 작품에 한하여 실물로 접수하며 작품크기 및 1차 이미지 접수 작품과 동일하지 않거나 미완성일 경우 낙선 처리함.)
- 2) 구비서류: 접수증(작품반출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3) 반입장소: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전북 익산시 동서로 490, TEL:063-837-6767)

## ■ 출품수: 1인 2점 이내

### ■ 출품료: 1점당 5만원

- 1차 이미지 접수시 출품료 납부 후 출품원서 입금확인란에 필히 기재
- 입금계좌번호 531014-51-050178 농협 (사)한국공예문화협회  
※입금시 성명과 출품부문을 입금기록사항에 필히 기재(예:홍길동금속)

### ■ 출품자격: 국적 무관하며 만 19세 이상인 자

### ■ 출품제한

- 국내의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 타 작품을 심히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
- 공동작품

### ■ 작품규격

- 평면: 200cm x 240cm 이내
- 입체: 210cm x 210cm x (높이)210cm 이내

## ■ 심사일자 및 결과 발표

- 1차 심사: 2023년 11월 25일(토)
- 1차 심사 결과 발표: 2022년 11월 25일(토)-1차심사 후
- 2차 심사: 2023년 11월 30일(목)
- 2차 심사 결과 발표: 2023년 11월 30일(목)-2차심사 후
- 한국공예대전 홈페이지 - www.artcraft.or.kr에 게재

## ■ 시 상

- 대 상 ( 1 점 ): 상장 및 상금 3,000만원
- 최우수상 ( 1 점 ):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 우 수 상 ( 2 점 ): 상장 및 상금 각 500만원
- 특 별 상 (8 점내외): 상장 및 상금 각 350만원
- 특 선 (15점내외):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입 선 (100점내외): 상장 및 상금 각 30만원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작품은 매입상금으로 본 협회에 귀속함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을 취소함)
- 시 상 일: 2023년 12월 6일(수) 오후 2시<사상식 일정은 추후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전북 익산시 동서로 490, TEL:063-837-6767)
-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 전 시

- 전시기간: 2023년 12월 1일(금) ~ 12월 6일(수)<6일간>
- 장 소: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전북 익산시 동서로 490, TEL:063-837-6767)

## ■ 작품반출기간

- 가. 전시작품 반출: 2023년 12월 6일(수)<당일 시상식이후에 한함>
- 나. 반출장소: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전북 익산시 동서로 490, TEL:063-837-6767)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 작품의 파손 또는 반출기간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하여 주최측에서 책임지지 않음)
- 다. 구비서류: 작품반출증

## ■ 추천·초대작가

- 수상에 따른 점수가 12점 이상이면 추천작가로 선정되며, 추천작가로 5년이 경과된 활동으로 (사)한국공예문화협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초대작가로 추대함.
- ※ 모든서류는 본인이 신청하고 제출해야함.
- ※ 수상점수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4점), 특별상(3점), 특선(2점), 입선(1점)

##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공예문화협회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 사무국 TEL:063-837-6767, FAX:063-837-4567
- 한국공예대전 홈페이지: www.artcraft.or.kr

▶ 주최: KCCA 사단법인 한국공예문화협회

▶ 주관: 한국공예대전 운영위원회

▶ 후원: 익산시 전라북도

▶ 협찬: (주)전북도시가스, 인천 양지의원, 대창모터스, 전라북도관광기념품100선관



# 정확구 아사 캔버스

# 고도 정확구

## NOTICE

- 한 달에 한번 예약 판매
- 선 주문 후 14일 이내 배달  
(주말, 공휴일 제외)
- 캔버스 아사 100% & 미송
- 시중 가격보다 40~50% 저렴
- 10호, 20호, 30호, 50호, 100호  
F형만 주문 가능
- 캔버스 개별 비닐 랩 포장
- 2개 / 4개 / 6개씩 1묶음 박스 포장
- 금보성 아트센터 직수입

**NAVER**

금보성아트센터



smartstore.naver.com > kimboseongart  
금보성아트센터

갤러리 아트샵

네이버 검색창에 **금보성아트센터** 검색하시고,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세요.

02) 391-3888

{ 협회 운영에  
도움주신  
고문님과 회원님 }

**윤 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공예가협회 고문

**김재영** 가현 문화재단 사외이사  
(사)한국공예가협회 원로

**전경화** 이화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사  
(사)한국공예가협회 홍보이사

**홍동희** 수원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사  
(사)한국공예가협회 홍보이사

**구아민** ㈜더비엔아이 책임연구원  
(사)한국공예가협회 섬유공예분과 홍보운영위원

**김봉희** 아라·미르 갤러리, 메타로이드 조형연구소 대표  
(사)한국공예가협회 총무이사

**봉지희** 연성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과 교수  
(사)한국공예가협회 국제교류이사

**윤미경** 한양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사)한국공예가협회 재무이사





Korean Crafts Council Magazine  
The 78th